



2026. 6

국회에산정책처 | 산업동향 & 이슈 | 제82호

NABO 산업동향 & 이슈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CONTENTS

산업 동향

산업 이슈 | 사업용 차량의 전기차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택시를 중심으로 -



nabO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산업동향 & 이슈

총괄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조정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작성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김윤희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유기환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양희열	행정실무관
	이아라	자료분석연구원

- 「NABO 산업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 (☎ 02-6788-378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산업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산업동향 & 이슈

C O N T E N T S

I 산업생산

1. 전산업	08
2. 제조업	12
3. 서비스업	23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30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39
3. 가공단계별 수출	40

III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42
2. 전력	44
3. 비철금속	50
4. 곡물	51

IV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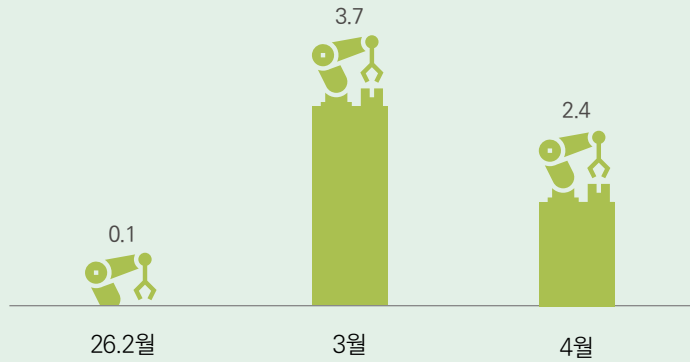
1. 배출권거래	52
2. 재활용가능자원	55

V 산업 이슈

사업용 차량의 전기차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택시를 중심으로 -	5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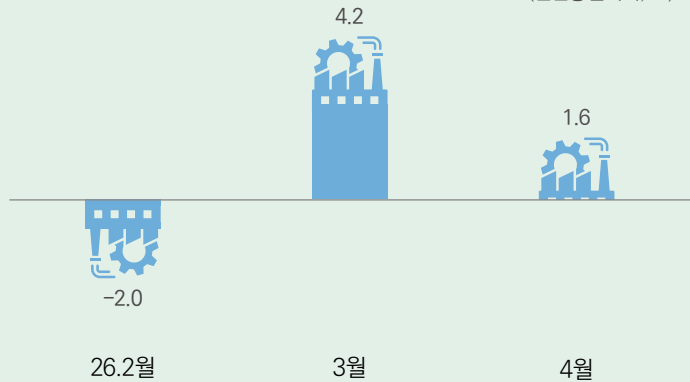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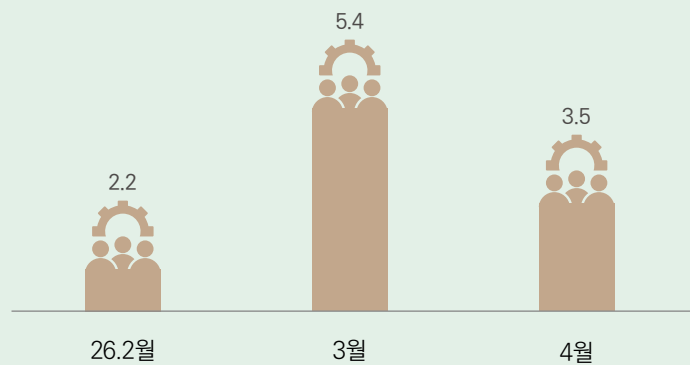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



산업동향 & 이슈 종합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서비스업 생산 확대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인 반면, 건설경기 부진 지속과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등 하방요인이 상존

4월과 5월 수출은 반도체, 석유, 컴퓨터 주변장치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4월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임

- (전산업 생산) 4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전월대비 0.6%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0.1 → (3월) 3.7 → (4월) 2.4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6.2월) 2.1 → (3월) 0.4 → (4월) -0.6

- (제조업 생산) 4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전월대비 0.8%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2.0 → (3월) 4.2 → (4월) 1.6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6.2월) 6.0 → (3월) 0.4 → (4월) -0.8

- (서비스업 생산)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전월대비 1.0%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2.2 → (3월) 5.4 → (4월) 3.5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6.2월) 0.5 → (3월) 1.5 → (4월) -1.0

- (건설업 생산) 4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5%, 전월대비 1.4% 모두 감소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6.2월) -5.9 → (3월) -5.8 → (4월) -5.5
- 건설업(전월대비, %): ('26.2월) 11.1 → (3월) -6.1 → (4월) -1.4

- (수출) 5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725.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4.7%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2월) 546.4 → (3월) 710.9 → (4월) 693.0 → (5월) 725.9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37.6 → (3월) 58.2 → (4월) 59.1 → (5월) 64.7

- (에너지 및 원자재) 5월 에너지, 비철금속, 곡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에너지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3월) 37.4 → (4월) 66.9 → (5월) 59.3
- 비철금속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3월) 23.0 → (4월) 38.1 → (5월) 39.3
- 곡물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3월) 5.2 → (4월) 7.4 → (5월) 11.5

- (환경) 4월 「지표배출권(KAU25)」은 전월대비 증가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

- KAU25 증가(원/톤): ('26.2월) 13,750 → (3월) 15,600 → (4월) 17,050
- KAU25 거래량(천톤): ('26.2월) 3,472 → (3월) 7,058 → (4월) 8,728

주요 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원/달러,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3월	4월	5월
전산업생산	1.6	1.1	0.3	1.0	3.6	-0.2	2.9	3.7	2.4	-
제조업생산	4.3	3.0	2.8	3.5	8.1	-1.9	3.0	4.2	1.6	-
서비스업생산	1.3	2.0	0.9	1.6	3.2	2.3	4.2	5.4	3.5	-
소매판매액	-1.9	0.3	-0.8 (0.6)	-0.1 (-0.6)	1.6 (1.2)	0.9 (0.6)	3.2 (2.4)	5.0 (1.9)	1.6 (-3.6)	-
설비투자지수	3.0	1.2	5.4 (-2.2)	5.5 (0.3)	1.2 (0.6)	-6.2 (-3.8)	9.8 (13.0)	9.8 (1.7)	8.1 (-3.6)	-
건설기성액	-4.6	-16.5	-21.1 (-7.2)	-17.3 (-2.6)	-11.9 (-0.8)	-15.1 (-4.1)	-6.2 (0.4)	-5.8 (-6.1)	-5.5 (-1.4)	-
수출(통관)	8.1	3.8	-2.3	2.1	6.5	8.4	38.3	50.2	48.0	53.2
13대 산업	10.7	3.7	-3.1	1.4	6.6	9.5	45.1	58.2	59.1	64.7
수입(통관)	-1.7	0.0	-1.3	-1.7	1.6	1.4	10.8	13.3	16.7	20.8
경상수지(억달러)	999.7	1230.5	194.9	283.9	360.1	391.7	743.8	379.3	282.9	-
소비자물가	2.3	2.1	2.1	2.1	2.0	2.4	2.1	2.2	2.6	3.1
취업자수 증감(천명)	160	193	155	207	217	195	183	206	74	-40
실업률	2.8	2.8	3.4	2.8	2.2	2.9	3.5	3.0	2.9	2.9
원/달러환율	1,364	1,422	1,473	1,350	1,403	1,439	1,530	1,530	1,483	1,508
국고채금리(3년)	3.11	2.57	2.59	2.39	2.45	2.84	3.2	3.38	3.41	3.68

주: 1.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

3.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I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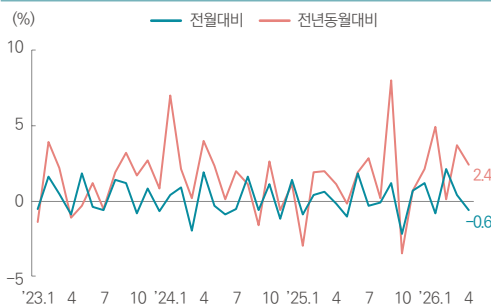
1

전산업

■ 2026년 4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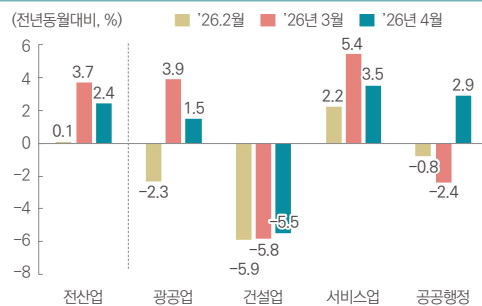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4%, 전월대비 0.6%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0.1 → (3월) 3.7 → (4월) 2.4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6.2월) 2.1 → (3월) 0.4 → (4월) -0.6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3.5%), 공공행정(2.9%), 광공업(1.5%)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5.5%)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공공행정(4.5%)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1.4%), 광공업(-0.7%), 서비스업(-1.0%)은 감소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2026년 4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석유(-20.6%), 가전(-18.3%), 컴퓨터·주변장치(-7.3%), 자동차(-7.1%), 섬유(-6.8%), 화학(-3.2%), 조선(-2.8%) 등은 감소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22.9%), 반도체(13.0%), 철강(1.4%)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1.6%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2.0 → (3월) 4.2 → (4월) 1.6

- 전월대비: 컴퓨터·주변장치(13.8%), 반도체(3.1%), 조선(2.1%), 철강(1.2%), 가전(0.7%)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석유(-19.6%), 자동차(-10.0%), 일반기계(-3.6%), 섬유(-3.3%), 화학(-2.1%), 무선통신기기(-2.0%) 등의 생산이 줄며 0.8% 감소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6.2월) 6.0 → (3월) 0.4 → (4월)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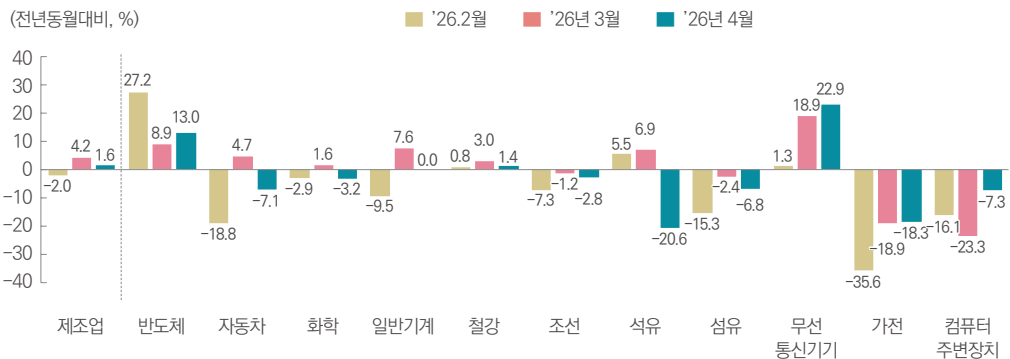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5.7	118.7	117.5	103.6	123.7	119.4	-0.8
제조업	6.6	6.0	5.5	-2.0	4.2	1.6	
반도체	4.9	17.9	17.7	27.2	8.9	13.0	3.1
자동차	16.1	2.9	1.2	-18.8	4.7	-7.1	-10.0
화학	3.4	1.9	0.5	-2.9	1.6	-3.2	-2.1
일반기계	5.6	-1.5	4.3	-9.5	7.6	0.0	-3.6
철강	-7.6	-6.9	-2.0	0.8	3.0	1.4	1.2
조선	35.6	38.7	40.6	-7.3	-1.2	-2.8	2.1
석유	-4.5	-7.7	-2.3	5.5	6.9	-20.6	-19.6
섬유	9.7	1.5	-0.8	-15.3	-2.4	-6.8	-3.3
무선 통신기기	15.4	15.8	4.7	1.3	18.9	22.9	-2.0
가전	-3.2	-6.1	-10.7	-35.6	-18.9	-18.3	0.7
컴퓨터 주변장치	-9.8	-13.6	1.4	-16.1	-23.3	-7.3	13.8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그림 3 | 제조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26년 4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금융·보험업(5.5%), 정보통신업(3.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3.2%), 도소매업(3.1%), 운수창고업(2.7%), 숙박 및 음식점업(1.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0.8%), 부동산업(0.4%) 등이 늘며 3.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2.2 → (3월) 5.4 → (4월) 3.5
- 전월대비: 정보통신업(4.3%),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3%), 숙박·음식점업(2.1%) 등은 늘었으나, 금융·보험업(-7.7%),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2%), 도소매업(-1.5%), 부동산업(-0.5%), 운수창고업(-0.1%) 등이 줄며 1.0%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6.2월) 0.5 → (3월) 1.5 → (4월) -1.0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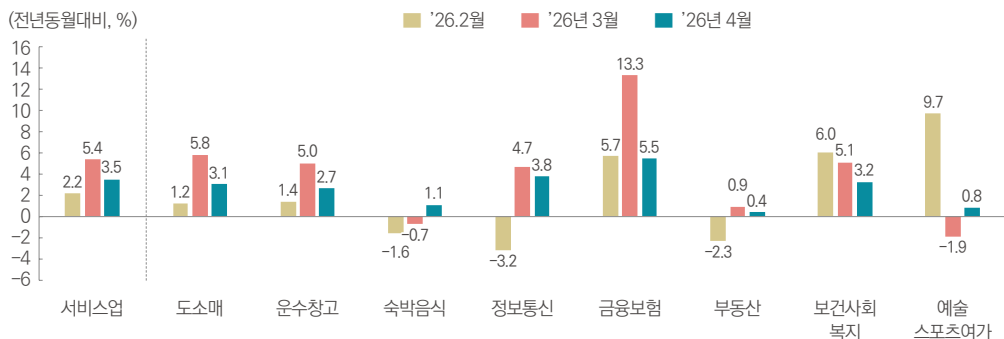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12.1	120.6	118.4	114.6	127.1	122.6	-1.0
서비스업	1.6	1.4	1.4	2.2	5.4	3.5	
도매 및 소매업	3.1	3.2	2.2	1.2	5.8	3.1	-1.5
운수 및 창고업	5.8	4.7	5.9	1.4	5.0	2.7	-0.1
숙박 및 음식점업	-3.0	-3.4	-2.2	-1.6	-0.7	1.1	2.1
정보통신업	0.6	-1.6	4.8	-3.2	4.7	3.8	4.3
금융 및 보험업	3.5	1.3	0.8	5.7	13.3	5.5	-7.7
부동산업	0.8	-1.4	-1.2	-2.3	0.9	0.4	-0.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	4.2	4.3	6.0	5.1	3.2	-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6	-2.2	0.9	9.7	-1.9	0.8	4.3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 | 서비스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서비스업동향조사」

■ 2026년 4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2024년 5월부터 연속해서 감소하다 24개월 연속 감소(-5.5%)하였는데, 부문별로는 건축(-6.4%)과 토목(-2.8%)이 모두 감소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6.2월) -5.9 → (3월) -5.8 → (4월) -5.5
 - 건축(전년동월대비, %): ('26.2월) -8.4 → (3월) -7.7 → (4월) -6.4
 - 토목(전년동월대비, %): ('26.2월) 1.8 → (3월) -0.7 → (4월) -2.8
- 전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감소(-1.4%)하였고, 부문별로는 건축(-1.5%)과 토목(-1.1%)이 모두 감소
 - 건설업(전월대비, %): ('26.2월) 11.1 → (3월) -6.1 → (4월) -1.4
 - 건축(전월대비, %): ('26.2월) 8.8 → (3월) -3.6 → (4월) -1.5
 - 토목(전월대비, %): ('26.2월) 17.3 → (3월) -12.3 → (4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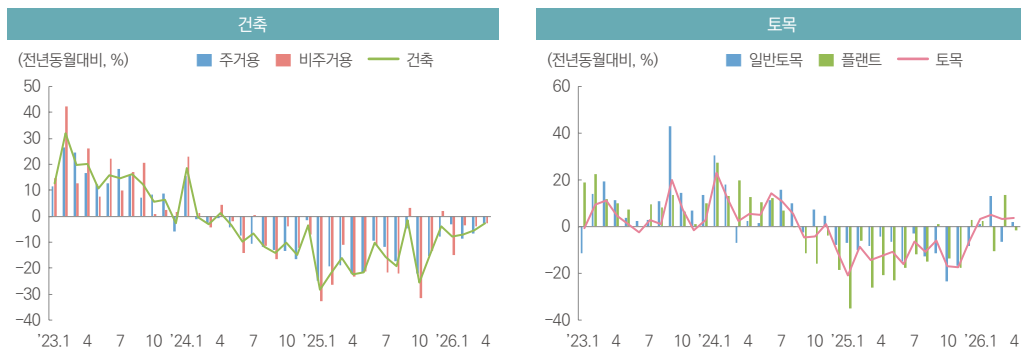
| 표 3 | 건설업 생산(불변)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건설업(생산액)	8.4	10.0	9.4	7.9	9.4	8.9	-1.4
건설업	-19.7	-16.2	-20.8	-5.9	-5.8	-5.5	-1.4
건축	-22.5	-16.5	-23.0	-8.4	-7.7	-6.4	-1.5
토목	-9.9	-15.6	-13.5	1.8	-0.7	-2.8	-1.1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5 | 공종별 건설업 기성액(경상) 추이



주: 1. 건축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성되고, 토목은 일반토목, 플랜트, 전기기계, 조경공사로 구성되나, 전기기계, 조경공사는 토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를 제외함

2. 세부 공정에 대한 건설기성액은 불변기준으로 공표되지 않으므로 경상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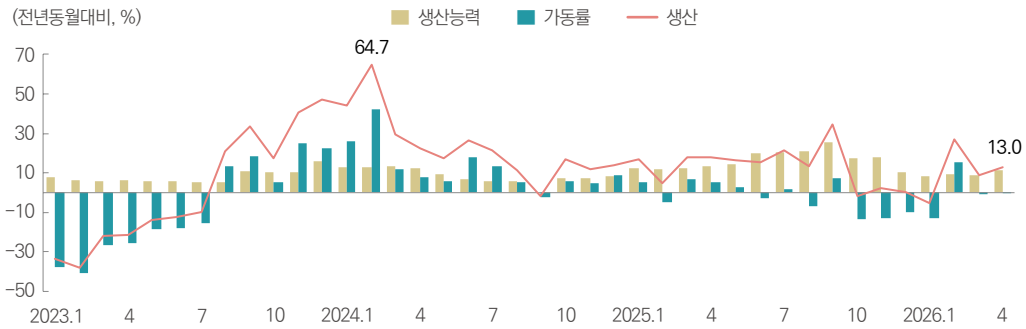
제조업

■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 4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7.2 → (3월) 8.9 → (4월) 13.0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5.3 → (3월) -0.7 → (4월) -0.4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9.4 → (3월) 8.9 → (4월) 11.3

| 그림 6 | 반도체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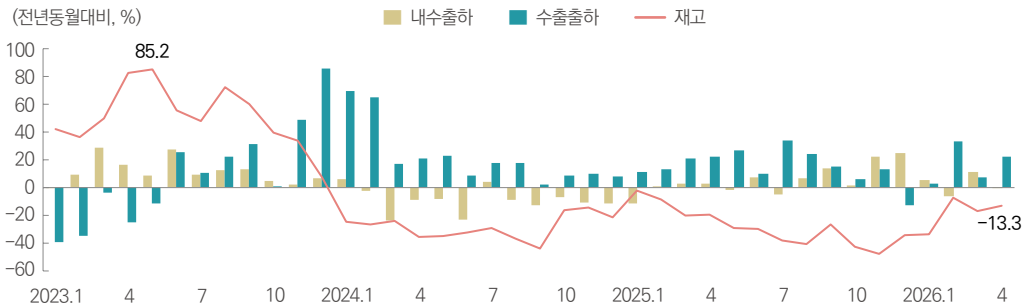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반도체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3.3%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7.7 → (3월) -17.0 → (4월) -13.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6.2 → (3월) 11.4 → (4월) -0.2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3.0 → (3월) 7.6 → (4월) 22.4

| 그림 7 | 반도체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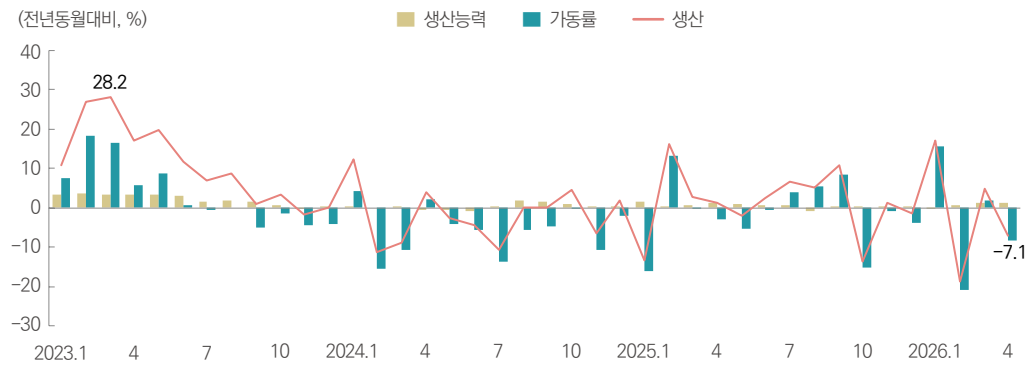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자동차: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4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8.8 → (3월) 4.7 → (4월) -7.1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0.9 → (3월) 1.9 → (4월) -8.3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8 → (3월) 1.2 → (4월) 1.2

[그림 8] 자동차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자동차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9.0 → (3월) 3.5 → (4월) 0.4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6.6 → (3월) 4.6 → (4월) -8.8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8.7 → (3월) 6.5 → (4월) -3.2

[그림 9] 자동차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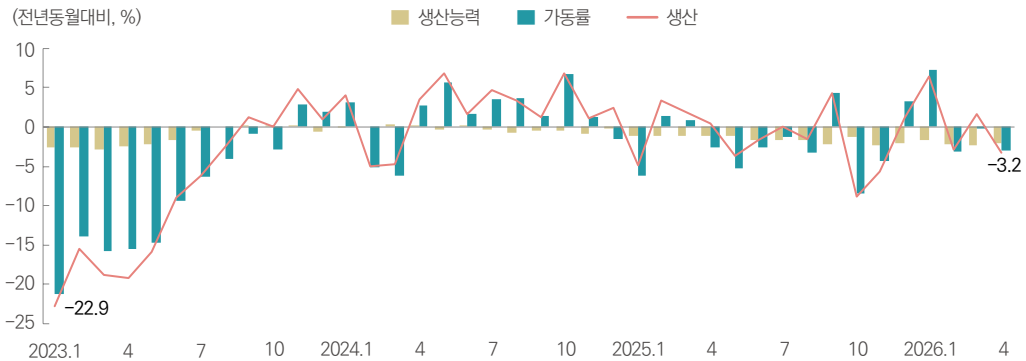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화학: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과 「재고」가 모두 감소

• 4월 화학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2%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9 → (3월) 1.6 → (4월) -3.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1 → (3월) -0.2 → (4월) -3.0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2 → (3월) -2.3 → (4월) -2.1

| 그림 10 | 화학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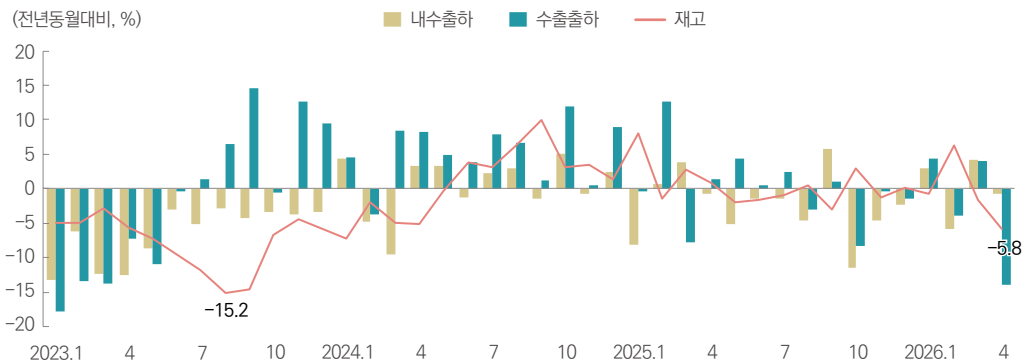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화학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6.3 → (3월) -1.7 → (4월) -5.8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5.8 → (3월) 4.1 → (4월) -0.8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9 → (3월) 4.0 → (4월) -13.9

| 그림 11 | 화학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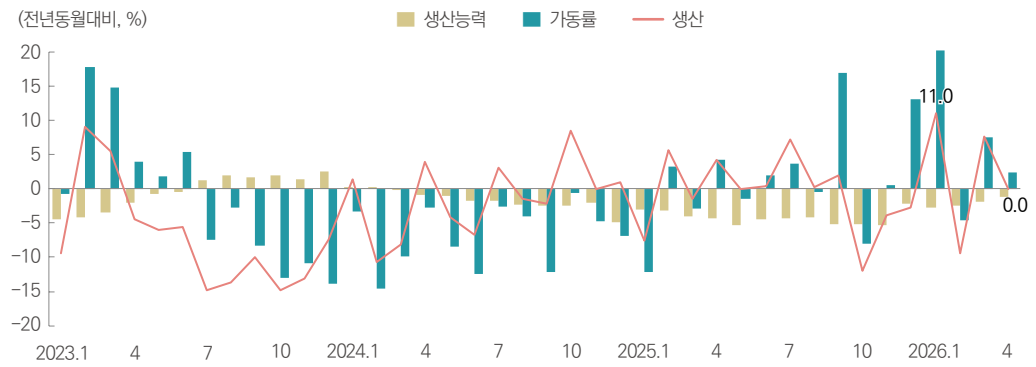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일반기계: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은 보합, 「재고」는 증가

• 4월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0%으로 보합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9.5 → (3월) 7.6 → (4월) 0.0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4.6 → (3월) 7.5 → (4월) 2.4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4 → (3월) -1.9 → (4월) -1.2

[그림 12] 일반기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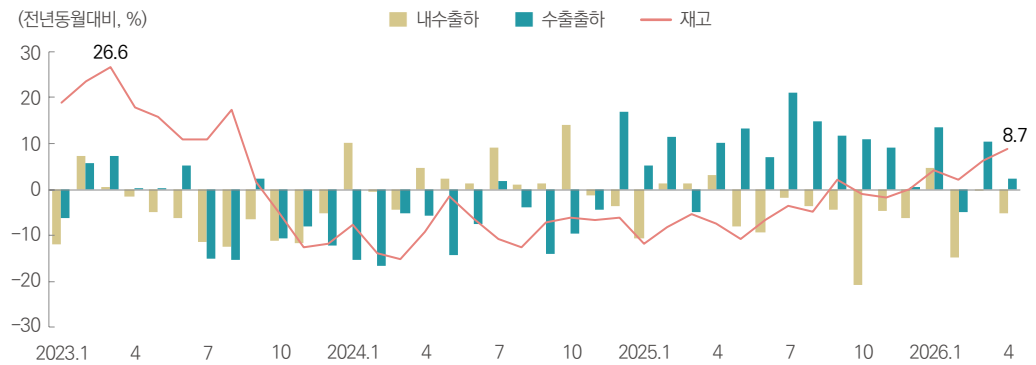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일반기계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8.7%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0 → (3월) 6.3 → (4월) 8.7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4.7 → (3월) -0.1 → (4월) -5.3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5.0 → (3월) 10.3 → (4월) 2.4

[그림 13] 일반기계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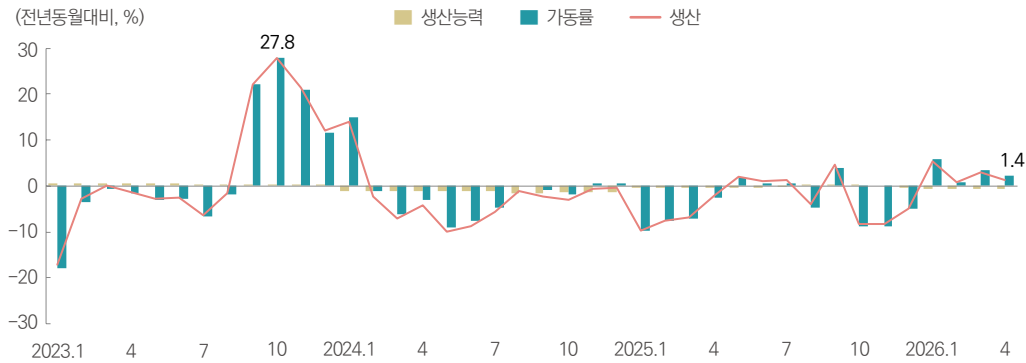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철강: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과 「재고」가 모두 증가

• 4월 철강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8 → (3월) 3.0 → (4월) 1.4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9 → (3월) 3.5 → (4월) 2.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7 → (3월) -0.7 → (4월) -0.7

| 그림 14 | 철강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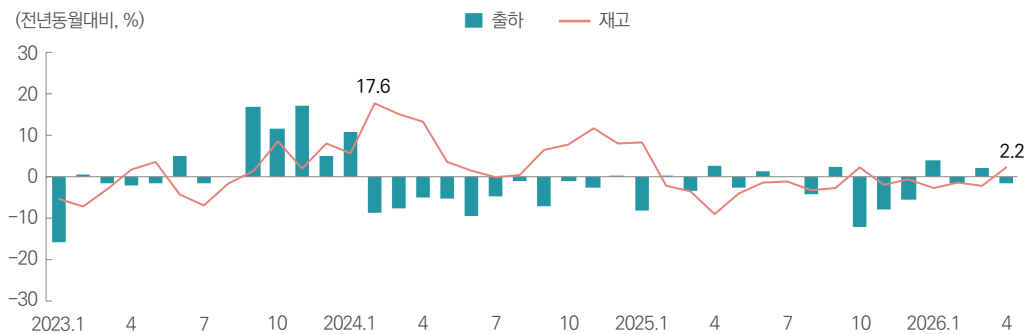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철강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4 → (3월) -2.4 → (4월) 2.2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6 → (3월) 2.0 → (4월) -1.5

| 그림 15 | 철강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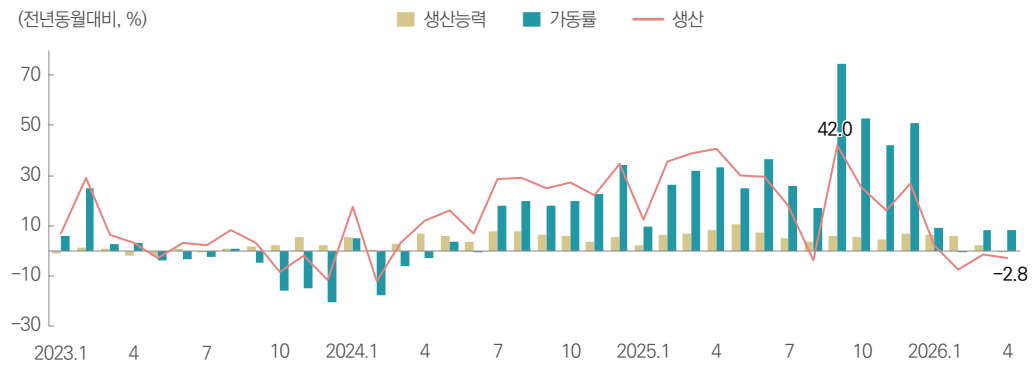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조선: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과 「출하」가 모두 감소

• 4월 조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7.3 → (3월) -1.2 → (4월) -2.8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7 → (3월) 8.4 → (4월) 8.5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6.2 → (3월) 2.5 → (4월) -0.5

| 그림 16 | 조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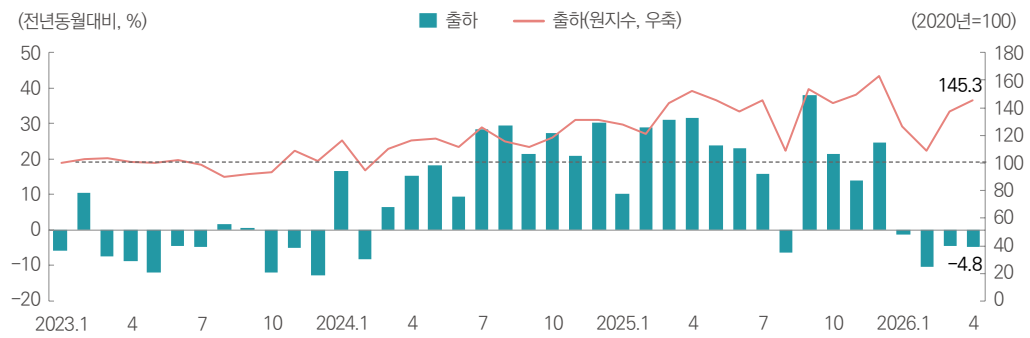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조선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4.8% 감소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0.3 → (3월) -4.3 → (4월) -4.8
- 출하(2020년=100): ('26.2월) 108.5 → (3월) 137.4 → (4월) 145.3

| 그림 17 | 조선 산업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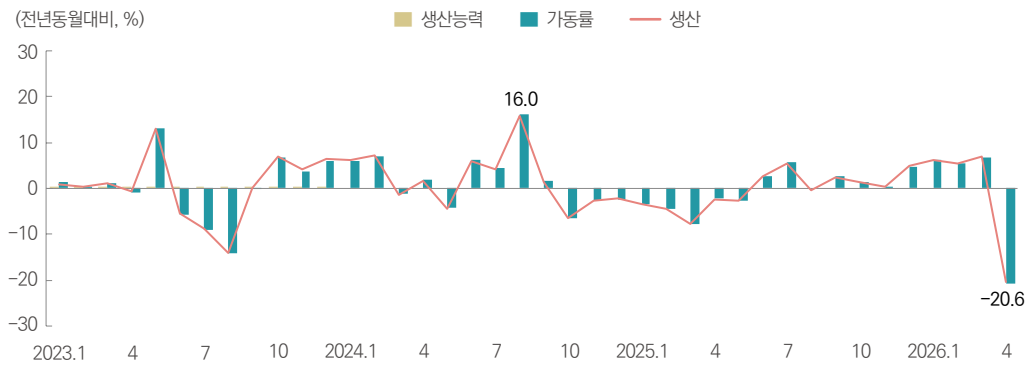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석유: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4월 석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6%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5.5 → (3월) 6.9 → (4월) -20.6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5.5 → (3월) 6.8 → (4월) -20.7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0 → (3월) 0.0 → (4월) 0.0

| 그림 18 | 석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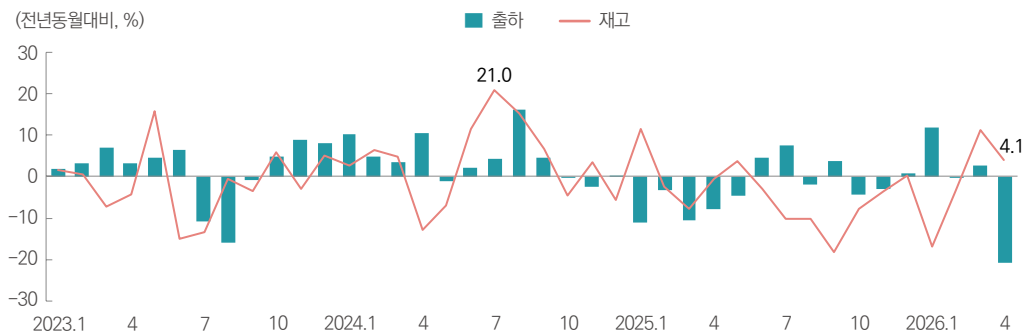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석유 산업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6 → (3월) 11.3 → (4월) 4.1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3 → (3월) 2.8 → (4월) -20.7

| 그림 19 | 석유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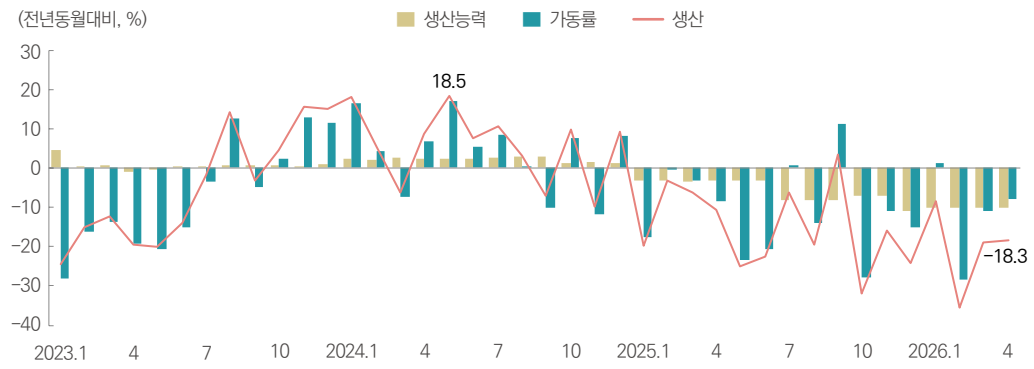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가전: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 4월 가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5.6 → (3월) -18.9 → (4월) -18.3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8.4 → (3월) -10.9 → (4월) -8.0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0.1 → (3월) -10.2 → (4월) -10.2

| 그림 20 | 가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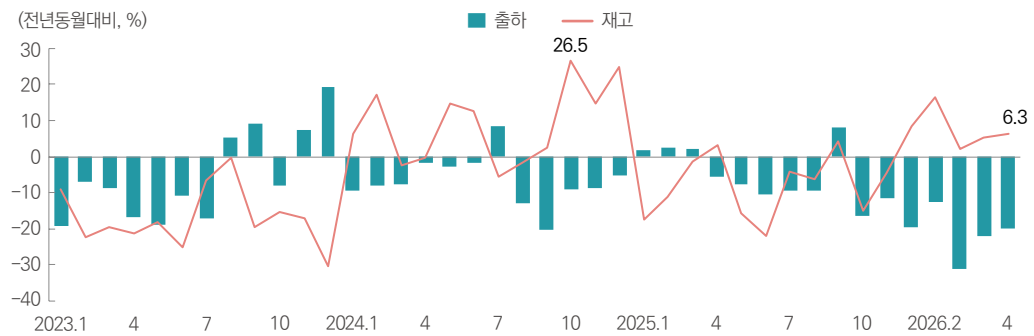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가전 재고는 출하 감소에도 생산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6.3%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0 → (3월) 5.1 → (4월) 6.3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1.2 → (3월) -22.2 → (4월) -20.1

| 그림 21 | 가전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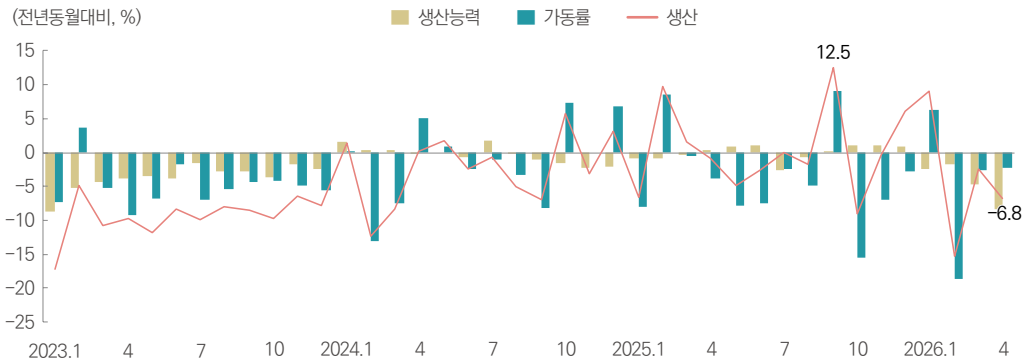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섬유: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과 「재고」가 모두 감소

• 4월 섬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8%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5.3 → (3월) -2.4 → (4월) -6.8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8.7 → (3월) -2.6 → (4월) -2.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8 → (3월) -4.7 → (4월)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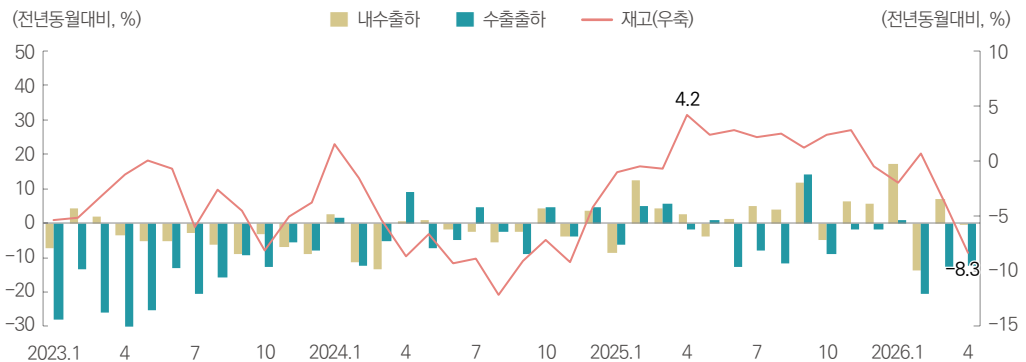
| 그림 22 | 섬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 4월 섬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8.3%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7 → (3월) -3.9 → (4월) -8.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3.6 → (3월) 7.0 → (4월) -0.5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0.4 → (3월) -13.4 → (4월) -12.4

| 그림 23 | 섬유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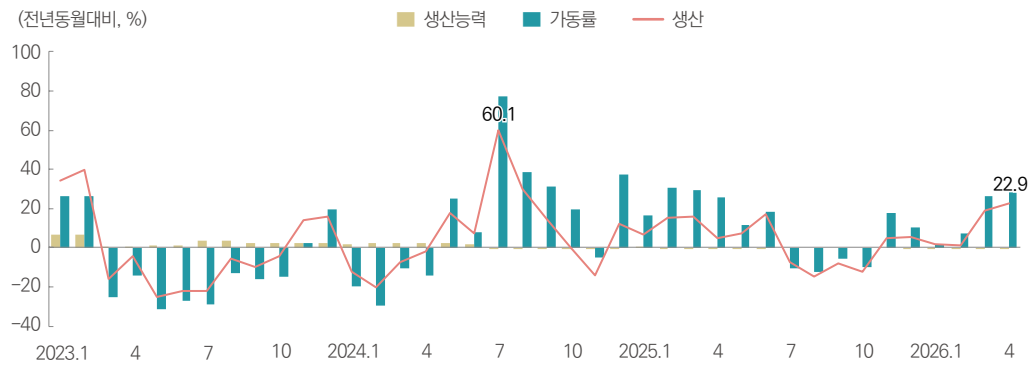


■ 무선통신기기: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과 「재고」가 모두 증가

• 4월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2.9%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3 → (3월) 18.9 → (4월) 22.9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7.1 → (3월) 26.5 → (4월) 28.8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6 → (3월) -0.7 → (4월) -0.7

| 그림 24 |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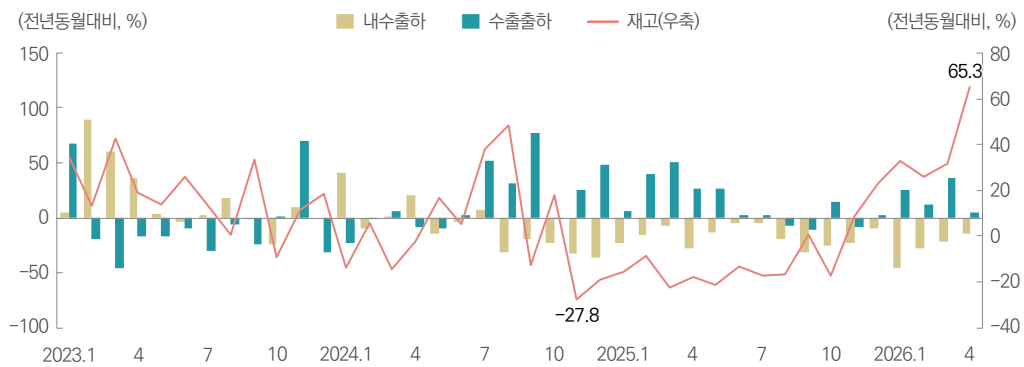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무선통신기기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65.3%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5.7 → (3월) 31.8 → (4월) 65.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7.3 → (3월) -21.6 → (4월) -13.9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1.9 → (3월) 35.7 → (4월) 4.9

| 그림 25 | 무선통신기기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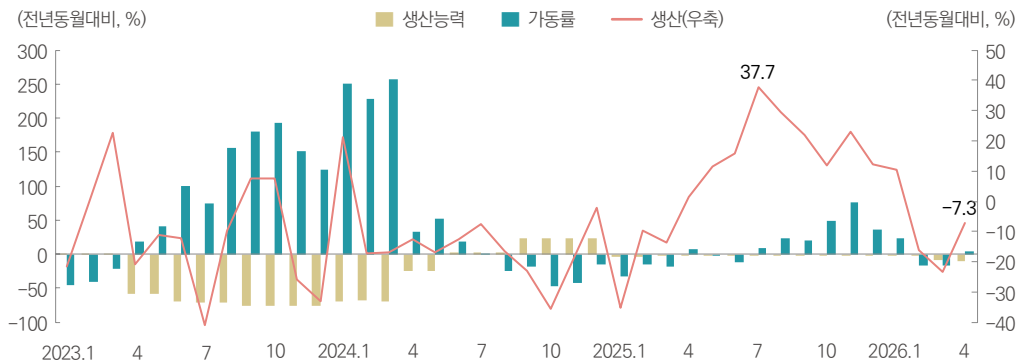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컴퓨터·주변장치: 전년동월대비 4월 「생산」과 「재고」가 모두 감소

• 4월 컴퓨터·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7.3%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6.1 → (3월) -23.3 → (4월) -7.3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5.8 → (3월) -16.9 → (4월) 4.4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0.7 → (3월) -9.2 → (4월) -10.5

| 그림 26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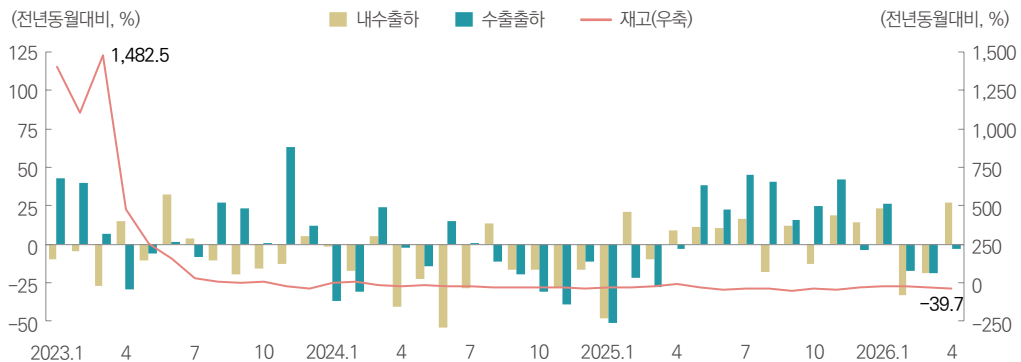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4월 컴퓨터·주변장치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9.7%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6.6 → (3월) -38.8 → (4월) -39.7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3.4 → (3월) -18.6 → (4월) 27.1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7.4 → (3월) -18.4 → (4월) -2.6

| 그림 27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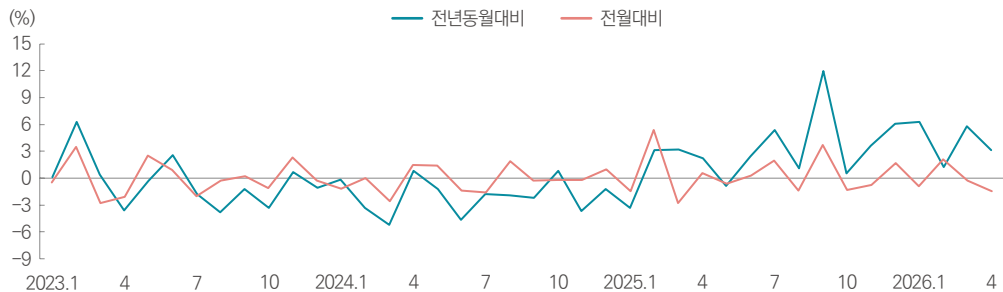
3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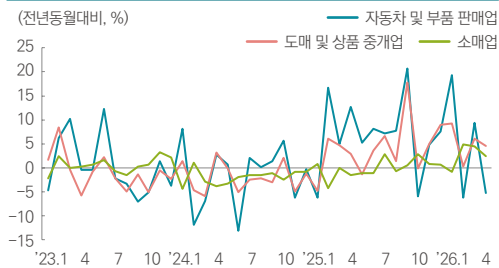
-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도매업(4.6%)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8.0%)의 경우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수입 과일과 축산물 판매가 증가하였고,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7.9%)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전기장비 수요가 늘었으며, 생활용품 도매업(5.7%)의 경우 감염병 환자 확산 및 다이어트 의약품의 수요 증가에 기인
- 전월대비로 1.5% 감소하였는데,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6.2%)의 경우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인한 물류차질 및 5월 이후 신차 출시 대기수요에 기인하며,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27.1%)의 경우 전월 통신기기 및 가전 신제품 출시 등 기저효과로 감소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2 → (3월) 5.8 → (4월) 3.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2월) 2.1 → (3월) -0.3 → (4월) -1.5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는 준내구재(4.5%)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의약품(11.3%), 의복(8.1%), 화장품(4.5%)의 증가폭이 큼

| 그림 28 | 도매업 생산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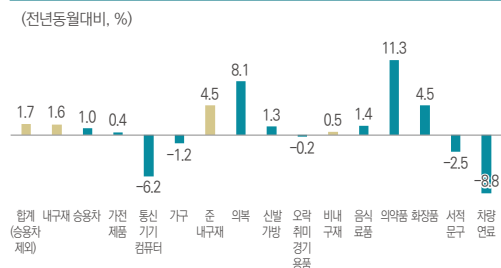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9 | 도매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0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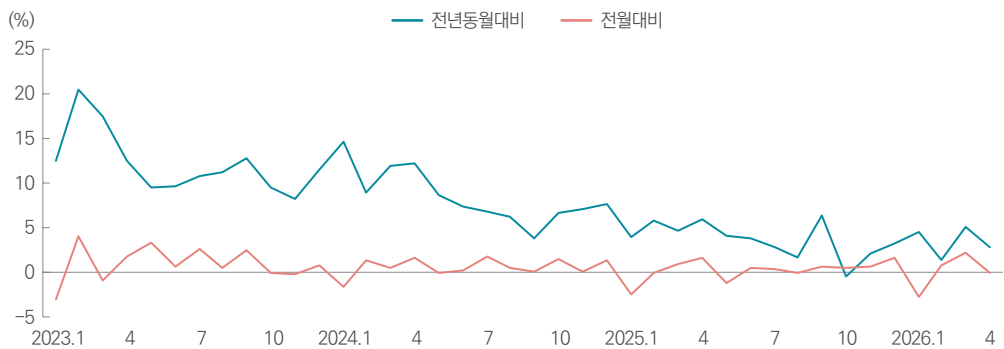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운수 및 창고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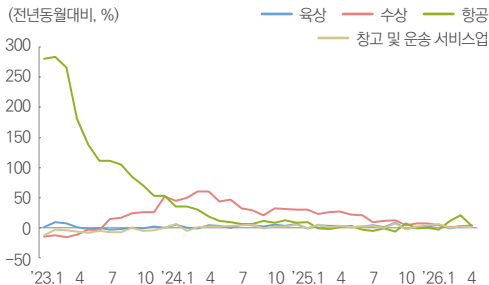
- 운수 및 창고업 생산은 철도운송업(6.7%), 해상운송업(4.6%)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철도운송업의 경우 고유가 충격에 따른 항공·도로운송의 대체수요 증가, 고속철도(KTX·SRT) 공급 확대¹⁾ 등에 기인
 - ※ 철도 이용객수는 2026년 4월 1,24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7% 증가
 - 해상운송업의 경우 중동분쟁에 따른 글로벌 해운 운임 상승 등에 기인
 - ※ 4월 해상 물동량은 1억 1,886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9.0% 감소하였으나 해상운임지수 SCFI와 CCFI 경우 4월말 각각 1,911, 1,270으로 전년동월대비 42.5%, 13.3% 증가
- 전월대비로 항공여객운송업(-14.0%)을 중심으로 0.1% 감소하였는데, 고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 증가 등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4 → (3월) 5.0 → (4월) 2.7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2월) 0.7 → (3월) 2.2 → (4월) -0.1

| 그림 31 | 운수·창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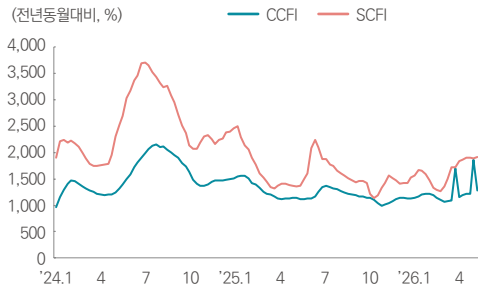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2 | 운수·창고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3 | 해상운임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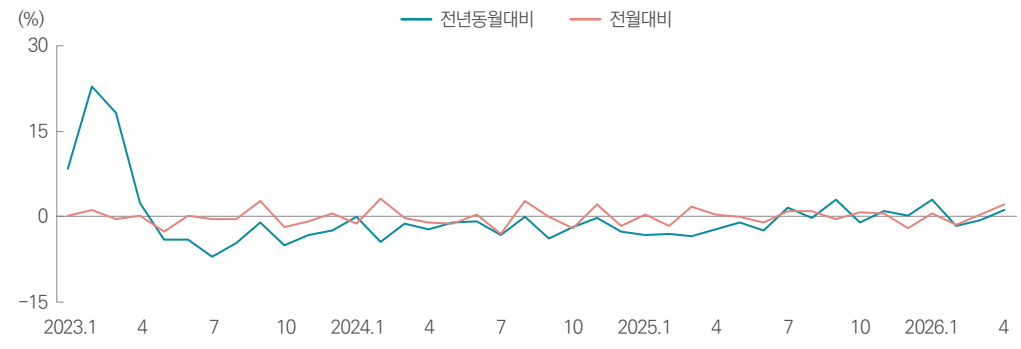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1) 국토교통부는 철도 통합 및 효율화의 일환으로 2026.2월 25일부터 KTX(수서역-부산)와 SRT(서울역-부산)의 '시범 교차 운행'을 도입.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청룡의 도입 및 중련 운행(두 대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과 더불어 이를 통해 기차의 회전율이 증가하면서 고속철도 전체 좌석 공급량이 하루 평균 16,000석 이상 추가됨

■ 숙박 및 음식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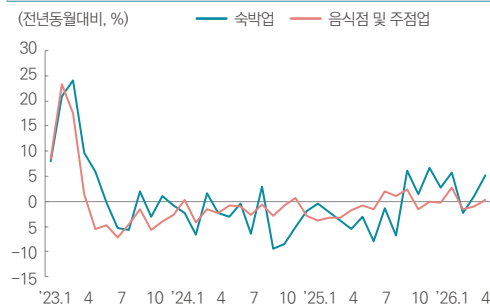
-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숙박업(5.1%)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4.5%)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1.1% 증가
 -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숙박세일페스타 일정 변경 등에 기인
 - ※ 외국인 관광객은 2026년 4월 20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
 - ※ 숙박세일페스타가 2025년 상반기 5월말부터 7월말까지 진행되었으나 2026년에는 4월 8일부터 5월 10일, 6월 11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4월 숙박수요가 증가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경우 야외 활동 증가와 전년 동월 고물가로 외식 및 음주 소비가 위축되었던 기저 효과에 기인
 - ※ 외식물가상승률은 2026년 4월 2.6%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 전월대비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3.8%)을 중심으로 2.1%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월 전반기 중 지속된 기상악화로 주말 나들이객과 저녁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면 소비가 위축된 기저효과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6 → (3월) -0.7 → (4월) 1.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2월) -1.4 → (3월) 0.3 → (4월) 2.1

| 그림 34 | 숙박·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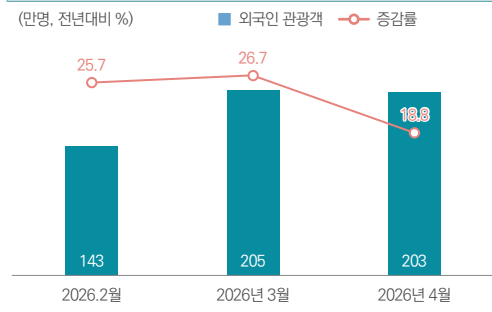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5 | 숙박·음식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6 | 외국인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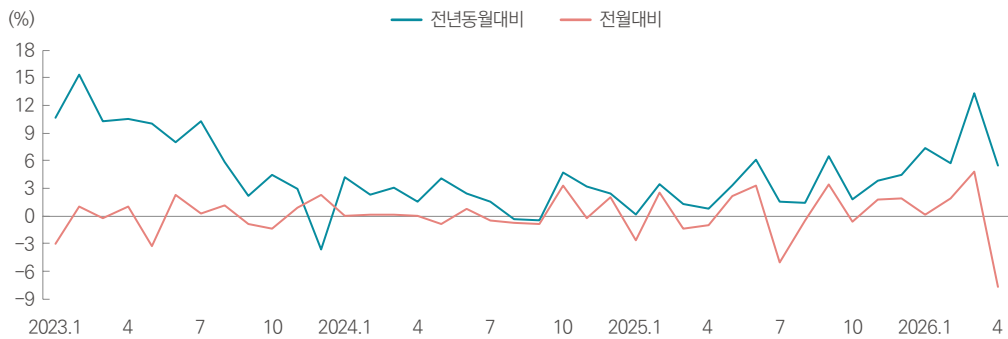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 금융 및 보험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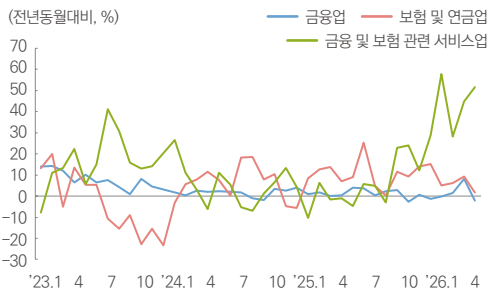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금융 지원서비스업(81.7%),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30.6%)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 국내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주식거래량 증가와 펀드·ETF·신탁 등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늘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수익이 확대된 데 기인
 - ※ 주식거래대금은 4월 92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4.3% 증가
 -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 계약고)은 4월 2,19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
- 연금 및 공제업(-17.5%), 기타금융업(-15.0%)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7.7% 감소
 - 연금 및 공제업의 경우 전월 일부 공제회의 회비 증가, 기타금융업의 경우 전월 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거래수익 증가 등 기저효과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5.7 → (3월) 13.3 → (4월) 5.5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2월) 1.9 → (3월) 4.9 → (4월) -7.7

| 그림 37 | 금융·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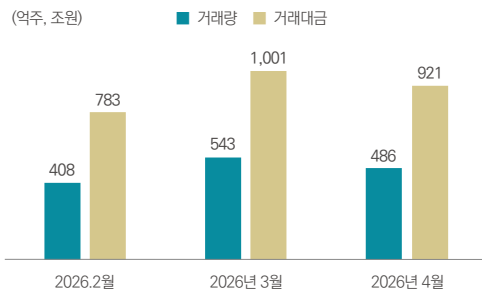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8 | 금융·보험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9 | 주식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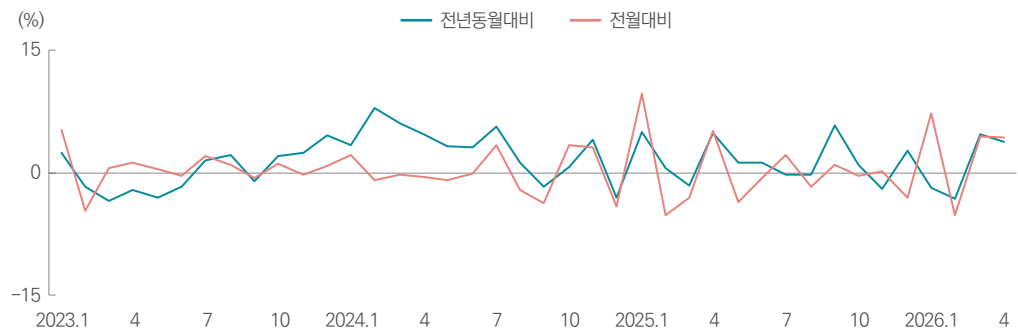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정보통신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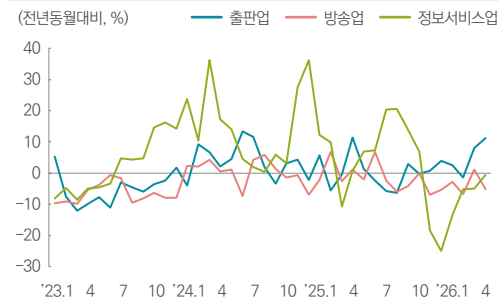
- 정보통신업 생산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3.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4.6%)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기업의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본격화와 공급망 재편 및 보안·거버넌스 관련 국산 SW 수요 증대에 기인
 - ※ AI나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하드웨어(고성능 GPU 서버, 대용량 스토리지, 고속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ICT품목 설비투자지수는 2026년 3월과 4월 각각 122.6으로 전년동월대비 24.3%, 17.5% 증가
- 전월대비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4.4%), 기타정보서비스업(7.5%) 등을 중심으로 4.3% 증가
 - 기타정보서비스업의 경우 물류자동화 맞춤형 무인 운송시스템에 대한 수요와 금융데이터 분석 플랫폼 관련 매출이 증가한 데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2 → (3월) 4.7 → (4월) 3.8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2월) -5.2 → (3월) 4.4 → (4월) 4.3

| 그림 40 | 정보통신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1 | 정보통신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2 | ICT 품목 설비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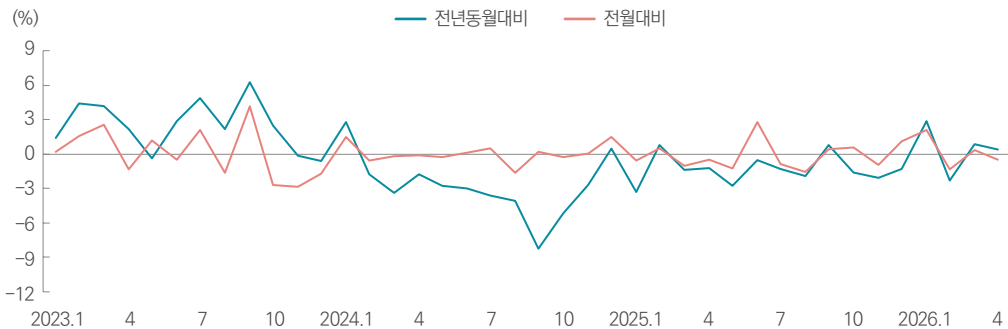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설비투자지수」

■ 부동산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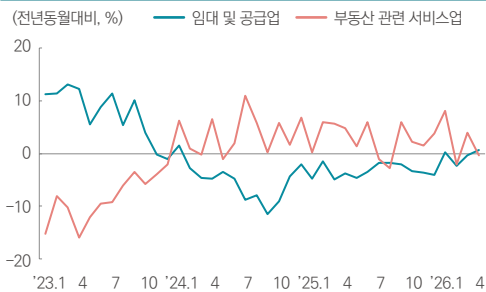
-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임대업(6.0%), 부동산 관리업(3.3%)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주택 전월세 거래량 증가 및 임대가격 상승에 기인
 - ※ '26.4월 전월세 거래량은 234,33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 ※ '26.4월 전세가격지수와 월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2.3%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이 3.3%, 3.4%로 증가폭이 큼
 - 부동산 관리업의 경우 인건비·전기세 인상에 따른 관리비 상승에 기인
 - ※ 공동주택관리비를 포함한 외식제외개인서비스 생산지수 증가율은 2026년 4월 전년동월대비 4.4%로 총지수 증가율(3.1%)을 상회
- 전월대비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4.4%)을 중심으로 0.5% 감소
 -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가 전년(2~3월)과 달리 올해 3월에 집중된 기저효과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3 → (3월) 0.9 → (4월) 0.4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2월) -1.4 → (3월) 0.3 → (4월) -0.5

| 그림 43 | 부동산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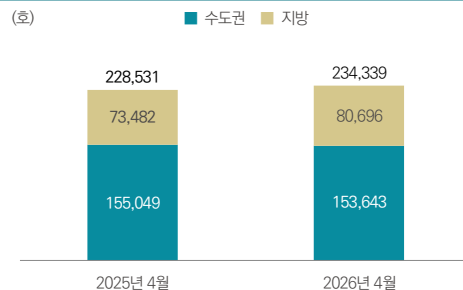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4 | 부동산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5 | 주택 전월세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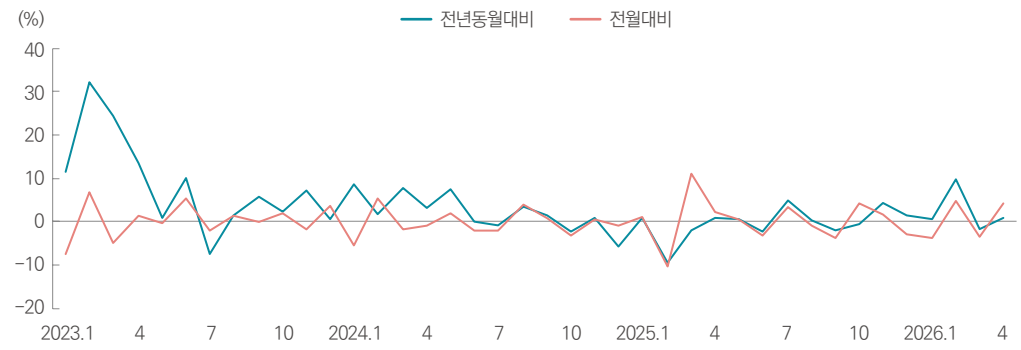


주: 불변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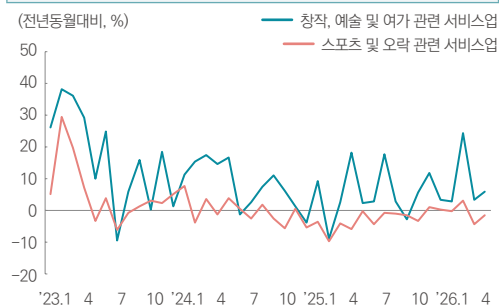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9%), 기타스포츠 서비스업(12.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12.2%)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공연 증가, 고용 및 인건비 상승, 봄철 성수기 관광객 증가 등에 기인
 - ※ '26.4월 공연티켓 판매액은 1,50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 전월대비로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1.8%)을 중심으로 4.3% 증가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9.7 → (3월) -1.9 → (4월) 0.8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6.2월) 5.0 → (3월) -3.6 → (4월) 4.3

| 그림 46 | 예술, 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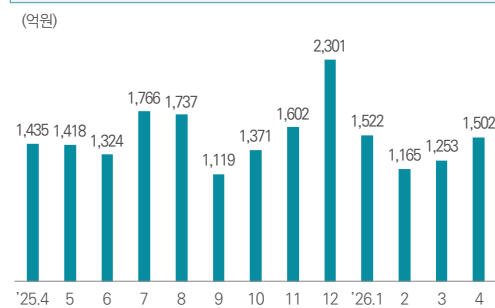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7 | 예술스포츠·여가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8 | 공연티켓 판매액 추이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

II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 2026년 5월 중 총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총수출은 877.5억달러로 국제무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는 53.2%, 전월대비는 2.2%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2월) 675.6 → (3월) 872.1 → (4월) 858.7 → (5월) 877.5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29.2 → (3월) 50.2 → (4월) 48.0 → (5월) 53.2
 - 증감률(전월대비, %): ('26.2월) 2.6 → (3월) 29.1 → (4월) -1.5 → (5월) 2.2

■ 2026년 5월 중 주요 13대 산업²⁾³⁾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년동월대비: 13대 산업의 수출은 725.9억달러로 가전(-21.7%), 섬유(-6.6%), 자동차(-5.2%),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169.4%), 컴퓨터·주변장치(134.1%), 이차전지(31.3%) 등이 증가하며 64.7% 증가
 - 수출액(억달러): ('26.2월) 546.4 → (3월) 710.9 → (4월) 693.0 → (5월) 725.9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7.6 → (3월) 58.2 → (4월) 59.1 → (5월) 64.7
- 전월대비: 13대 산업 수출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나 반도체(16.5%)를 중심으로 이차전지(5.4%), 컴퓨터주변장치(5.2%) 등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4.7% 증가
 - 증감률(전월대비, %): ('26.2월) 5.0 → (3월) 30.1 → (4월) -2.5 → (5월) 4.7
- 반도체 수출은 주요 수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의 강한 수요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월 최고 수출액을 기록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5월) 137.9(21.2%) → ('26.5월) 371.6(169.4%)
 - DRAM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6.2월) 13.0 → (3월) 13.0 → (4월) 16.0 → (5월) 20.0

2) 생산과 수출의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통계청의 업종별 산업분류(KSIC)와 산업통상부의 품목별 산업분류기준(MTI)를 매칭하여 분류

3) 자동차(수송기계,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 및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포함

- 자동차 수출은 부품수급 차질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중고차 수출이 부진하며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감소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5월) 78.5(-5.5%) → ('26.5월) 74.5(-5.2%)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5월) 62.0(-4.5%) → ('26.5월) 58.3(-5.9%)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5.5월) 16.5(-9.4%) → ('26.5월) 16.1(-2.5%)
- 일반기계 수출은 미국의 관세와 중동전쟁의 장기화 등의 리스크 영향으로 최대 수출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감소

| 표 1 | 산업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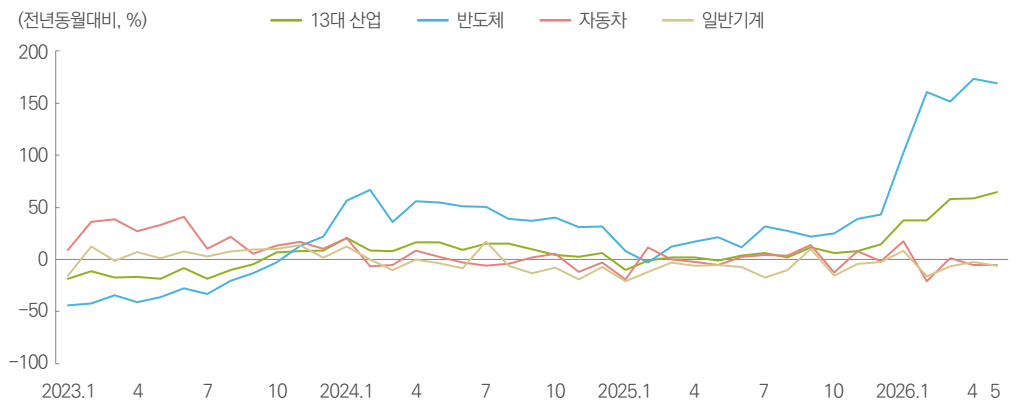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전월대비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5월*	
총수출(수출액)	522.9	580.7	580.4	572.6	675.6	872.1	858.7	877.5	2.2
총수출	0.4	2.7	3.4	-1.3	29.2	50.2	48.0	53.2	
13대 산업(수출액)	397.0	449.5	435.6	440.8	546.4	710.9	693.0	725.9	4.7
13대 산업	-1.1	1.8	1.9	-1.1	37.6	58.2	59.1	64.7	
반도체	-3.0	11.9	17.2	21.2	160.6	151.4	173.5	169.4	16.5
자동차	11.6	-0.1	-2.2	-5.5	-21.3	1.2	-5.7	-5.2	-7.6
화학	0.9	-8.4	-10.8	-17.5	-14.1	9.5	8.0	11.1	-9.7
일반기계	-11.9	-3.3	-6.2	-5.2	-16.2	-6.4	-2.6	-6.3	-9.3
석유	-12.5	-29.2	-15.9	-20.8	3.3	86.1	39.9	46.6	2.8
철강	-4.5	-12.5	7.5	-8.8	-5.3	-0.3	-9.3	-2.2	-4.9
조선	-9.9	51.1	17.3	4.5	41.3	10.8	43.9	16.7	-9.6
컴퓨터주변장치	5.0	14.5	-10.3	-10.0	83.0	83.7	170.6	134.1	5.2
무선통신기기	26.5	11.7	26.6	3.8	12.2	43.3	11.6	12.7	-9.9
섬유	-0.2	-4.4	-1.3	-11.2	-15.8	4.9	6.3	-6.6	-18.8
가전	-4.2	-7.7	-4.7	-14.9	-20.2	-8.0	-19.9	-21.7	-15.2
이차전지	-9.5	-4.8	13.1	-18.5	-5.7	28.6	-6.6	31.3	5.4
바이오헬스	7.0	9.4	12.1	6.6	6.9	6.4	18.3	5.2	-12.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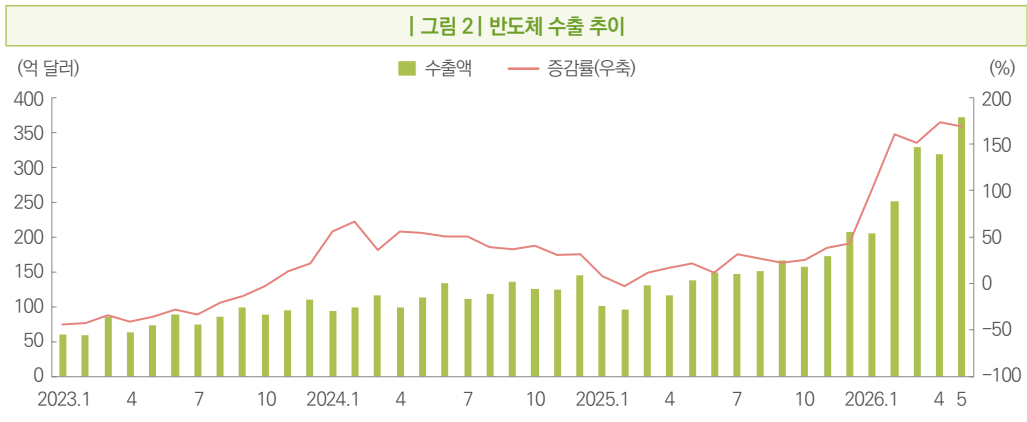
| 그림 1 | 13대 산업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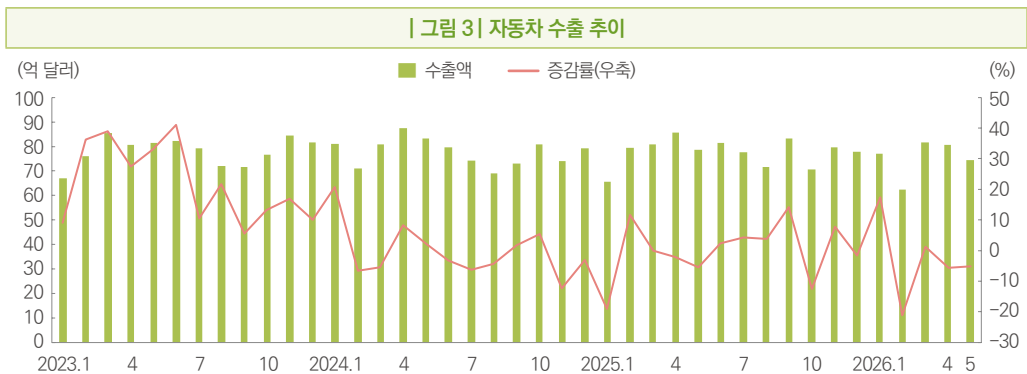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9.4% 증가하여 371.6억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151.4 → (4월) 173.5 → (5월) 169.4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26.3월) 328.3 → (4월) 319.0 → (5월) 371.6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하여 74.5억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1.2 → (4월) -5.7 → (5월) -5.2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 ('26.3월) 81.6 → (4월) 80.6 → (5월) 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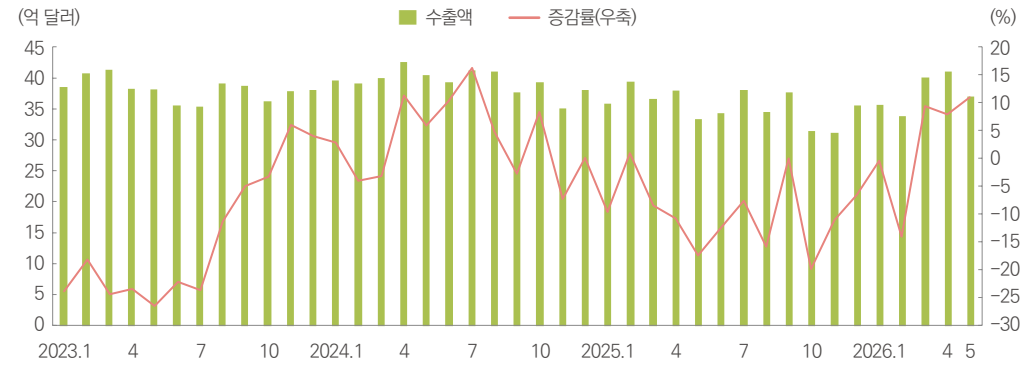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화학: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하여 37.0억달러를 기록
 - 화학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9.5 → (4월) 8.0 → (5월) 11.1
 - 화학 수출액(억달러): ('26.3월) 40.0 → (4월) 41.0 → (5월) 37.0

| 그림 4 | 화학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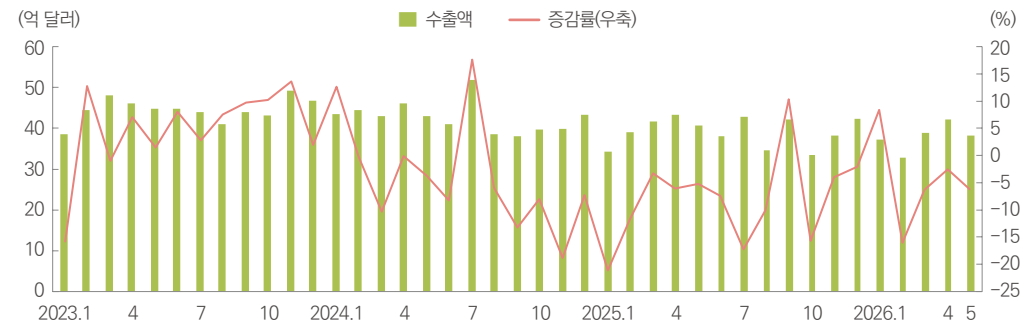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일반기계: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하여 38.2억달러를 기록
 - 일반기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6.4 → (4월) -2.6 → (5월) -6.3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 ('26.3월) 38.9 → (4월) 42.1 → (5월)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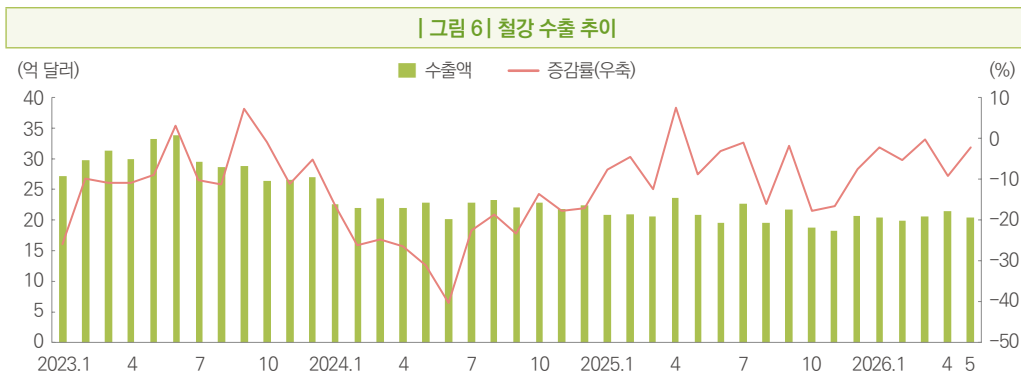
| 그림 5 | 일반기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철강: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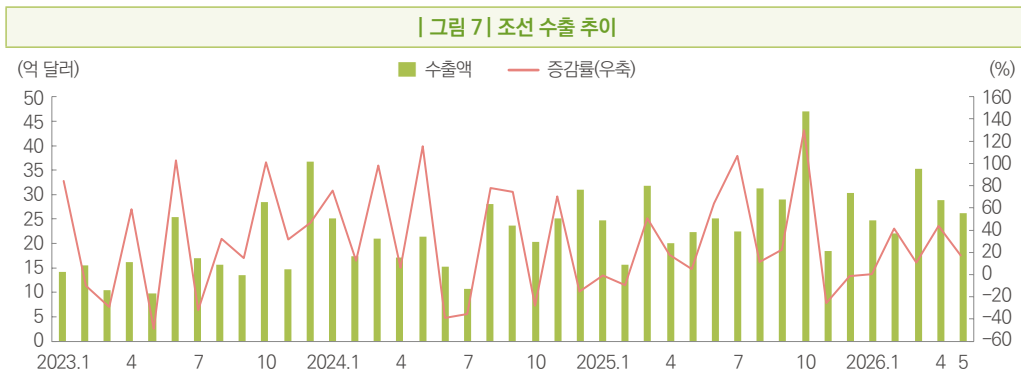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여 20.4억달러를 기록
 - 철강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0.3 → (4월) -9.3 → (5월) -2.2
 - 철강 수출액(억달러): ('26.3월) 20.5 → (4월) 21.5 → (5월) 20.4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조선: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하여 26.1억달러를 기록
 - 조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10.8 → (4월) 43.9 → (5월) 16.7
 - 조선 수출액(억달러): ('26.3월) 35.3 → (4월) 28.9 → (5월)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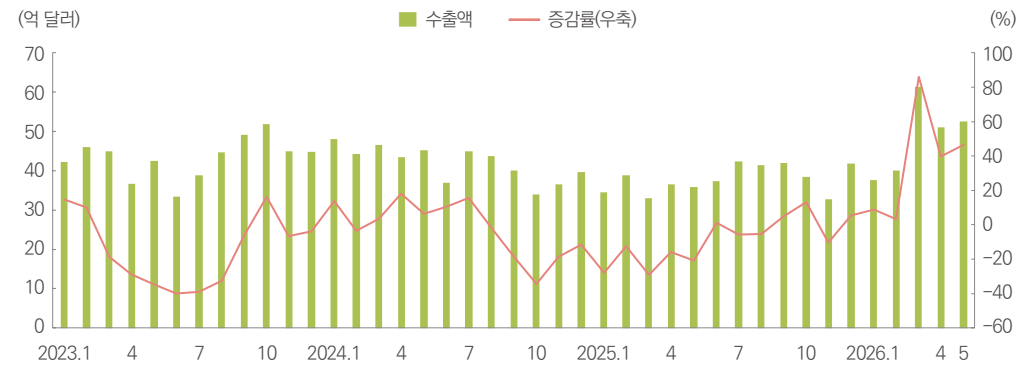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석유: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6.6% 증가하여 52.5억달러를 기록
 - 석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86.1 → (4월) 39.9 → (5월) 46.6
 - 석유 수출액(억달러): ('26.3월) 61.4 → (4월) 51.1 → (5월) 52.5

| 그림 8 | 석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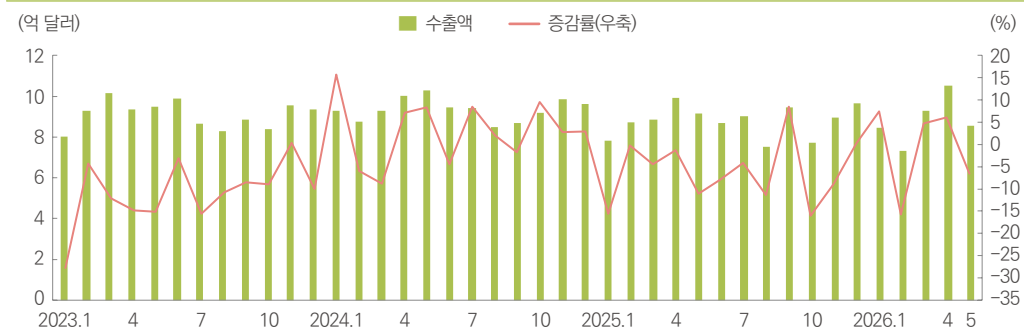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섬유: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6% 감소하여 8.5억달러를 기록
 - 섬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4.9 → (4월) 6.3 → (5월) -6.6
 - 섬유 수출액(억달러): ('26.3월) 9.3 → (4월) 10.5 → (5월)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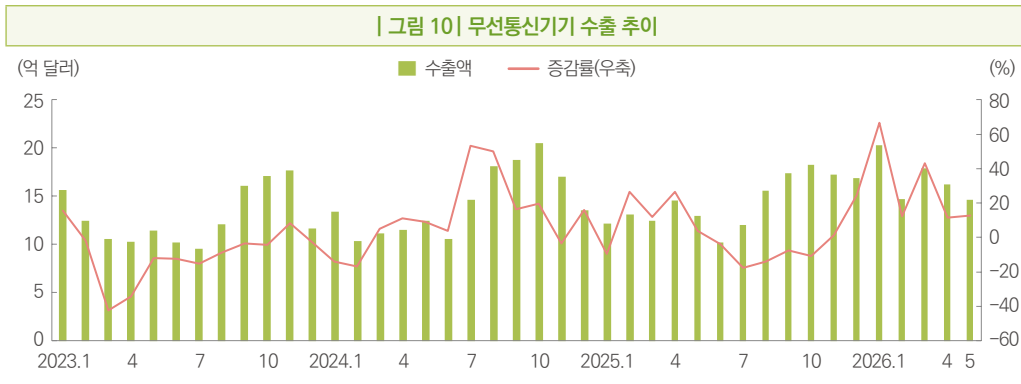
| 그림 9 | 섬유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무선통신기기: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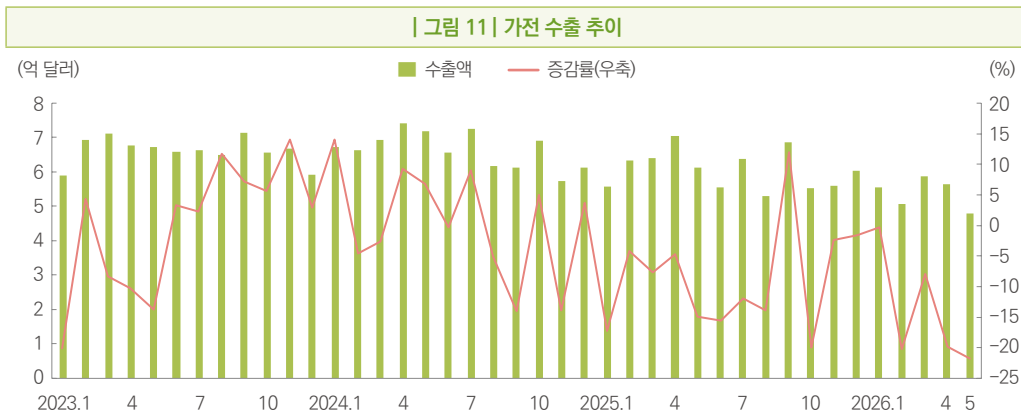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하여 14.6억달러를 기록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43.3 → (4월) 11.6 → (5월) 12.7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억달러): ('26.3월) 17.9 → (4월) 16.2 → (5월) 14.6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가전: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7% 감소하여 4.8억달러를 기록
 - 가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8.0 → (4월) -19.9 → (5월) -21.7
 - 가전 수출액(억달러): ('26.3월) 5.9 → (4월) 5.7 → (5월)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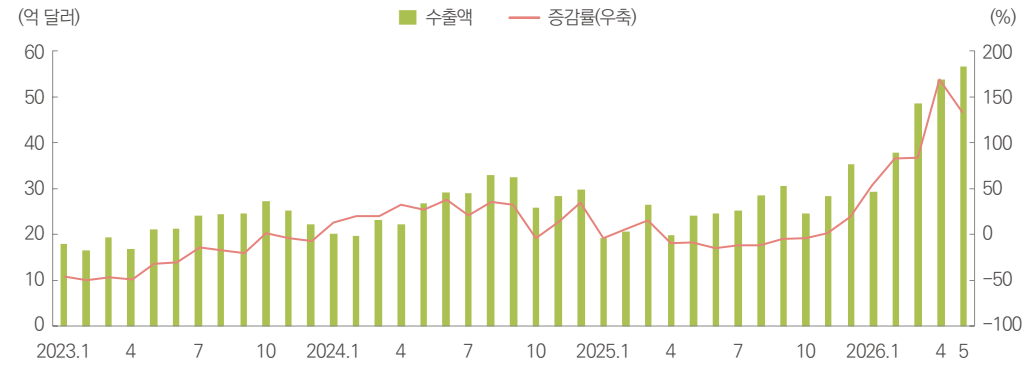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컴퓨터·주변장치: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4.1% 증가하여 56.5억달러를 기록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83.7 → (4월) 170.6 → (5월) 134.1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액(억달러): ('26.3월) 48.6 → (4월) 53.7 → (5월) 56.5

| 그림 12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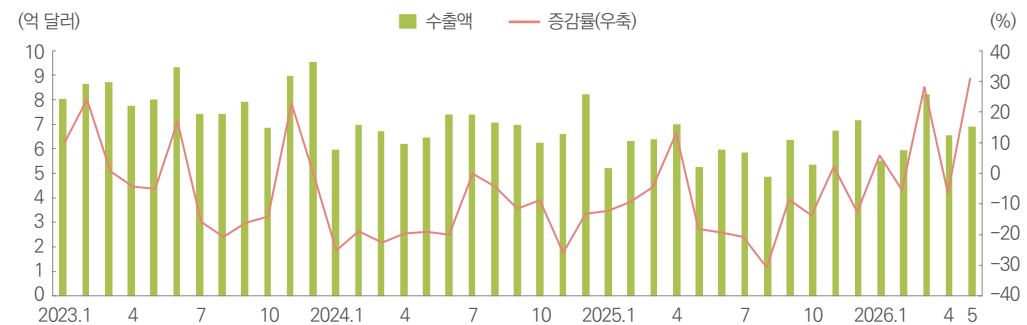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이차전지: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3% 증가하여 6.9억달러를 기록
 - 이차전지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28.6 → (4월) -6.6 → (5월) 31.3
 - 이차전지 수출액(억달러): ('26.3월) 8.2 → (4월) 6.5 → (5월)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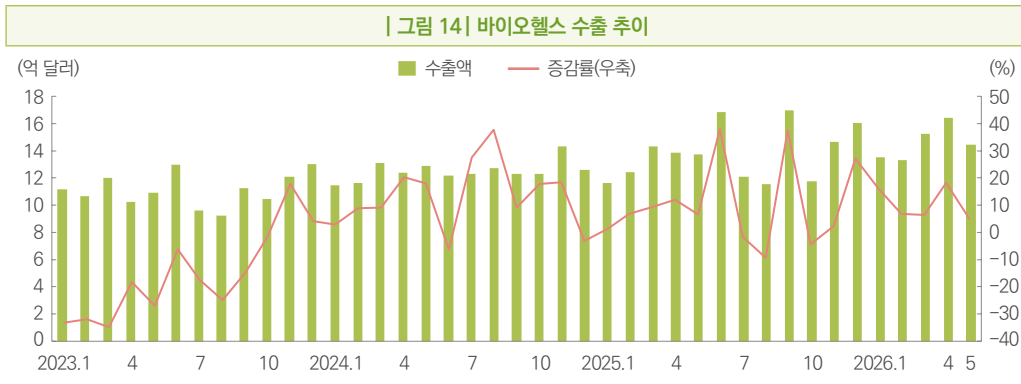
| 그림 13 | 이차전지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바이오헬스: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하여 14.4억달러를 기록
 - 바이오헬스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6.4 → (4월) 18.3 → (5월) 5.2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달러): ('26.3월) 15.2 → (4월) 16.4 → (5월) 14.4



■ 주요 유망소비재⁴⁾: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8% 증가, 전월대비 13.3% 감소하여 40.7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 12.9 → (4월) 18.3 → (5월) 7.8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액(억 달러): ('26.3월) 42.6 → (4월) 47.0 → (5월) 40.7

| 표 2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25				2026				전월대비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5월*	
유망소비재(수출액)	35.6	37.7	39.7	37.8	35.4	42.6	47.0	40.7	-13.3
유망소비재	15.5	8.3	6.6	5.2	-0.7	12.9	18.3	7.8	
농수산식품	19.4	10.3	8.5	5.5	-9.4	14.6	8.8	4.7	-12.0
화장품	23.5	21.0	20.7	8.3	3.3	26.1	31.4	24.2	-12.7
패션의류	3.0	0.0	8.0	-2.5	-9.7	19.1	28.9	0.9	-23.1
생활유아용품	12.9	-9.1	-16.7	-5.9	-11.1	4.9	1.8	-4.8	-12.2
의약품	8.2	13.0	14.6	13.7	18.1	2.4	26.4	5.4	-14.1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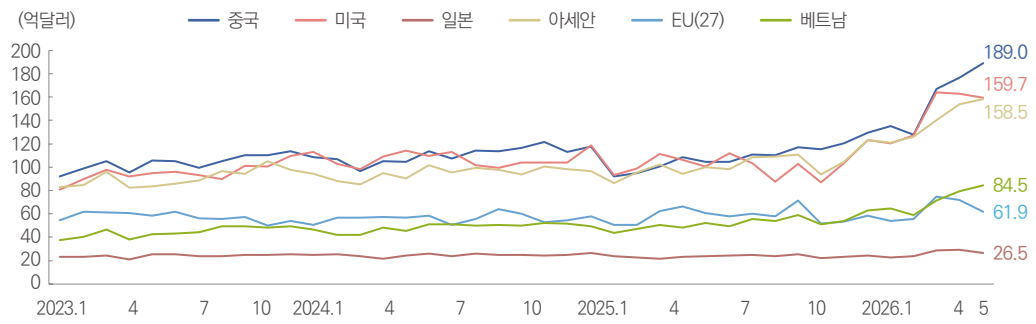
4)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5대 유망소비재를 확정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 5월 10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중동과 CIS 등 전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증가

-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수산물 수출도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증가
 - 대중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⁵⁾: (반도체) 243.2%, (무선통신기기) 14.7%, (농수산물) 19.0%
- 대미국 수출은 완성차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컴퓨터·주변장치,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에 대한 강한 수요와 함께 철강 수출도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
 - 대미국 수출액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반도체) 651.3%, (철강) 28.4%, (완성차) -5.1%

| 그림 15 |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3 |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가공단계별	2025				2026				전월대비
	2월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5월*	
중국	-1.4	-4.4	3.8	-8.2	34.3	65.8	62.6	80.9	6.9
미국	0.8	2.1	-7.0	-8.2	28.4	47.8	54.0	59.1	-2.2
일본	-4.6	1.5	-5.5	-9.0	5.3	33.9	28.4	11.8	-10.4
아세안	12.4	8.3	4.0	-1.3	31.8	37.1	64.0	58.4	2.9
EU(27)	-10.4	9.7	17.2	3.9	9.5	19.3	8.5	2.4	-13.9
중동	19.6	13.0	1.9	-8.3	-2.0	-49.3	-24.9	-7.7	-0.2
중남미	-6.1	-17.2	3.9	-11.9	-2.0	38.2	10.0	43.2	10.7
CIS	-16.4	30.0	37.0	33.5	-22.2	-12.4	-11.7	-19.2	-9.2
베트남	12.5	4.0	6.3	2.4	24.5	41.9	64.1	61.4	6.5
인도	8.2	-0.7	8.6	-3.7	9.0	31.1	41.9	25.1	-16.3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5) 해당 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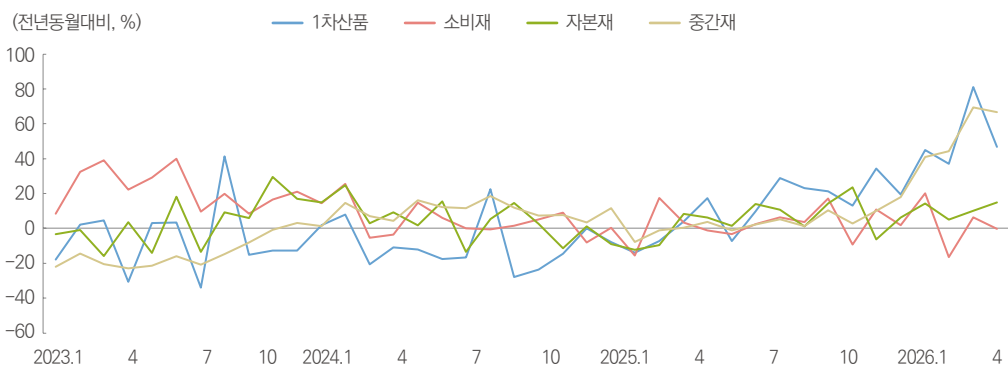
3

가공단계별 수출

■ 4월 가공단계별 「수출」 중 중간재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증가

- 1차상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6.8% 증가, 전월대비 7.9% 감소
 - 1차상품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7.1 → (3월) 81.5 → (4월) 46.8
- 소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전월대비 0.4% 감소
 - 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6.9 → (3월) 6.2 → (4월) -0.5
- 자본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 전월대비 1.6% 감소
 - 자본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4.9 → (3월) 10.3 → (4월) 15.0
- 중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7.0% 증가, 전월대비 1.8% 감소
 - 중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44.5 → (3월) 69.9 → (4월) 67.0

| 그림 16 |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4 |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5			2026			
	2월	3월	4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1차상품	-7.5	3.8	17.4	37.1	81.5	46.8	-7.9
소비재	17.7	3.2	-1.4	-16.9	6.2	-0.5	-0.4
자본재	-10.0	8.4	6.3	4.9	10.3	15.0	-1.6
중간재	-1.4	0.1	3.4	44.5	69.9	67.0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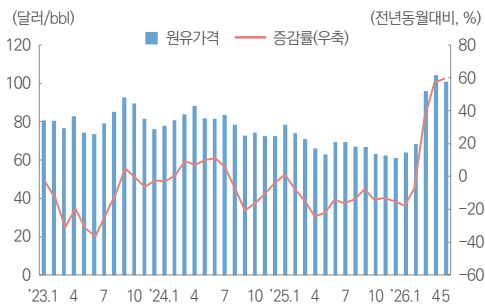
■ 2026년 5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에너지 가격은 133.9 수준으로 전년동월대비 59.3% 상승, 전월대비 8.7% 하락
 - 에너지 가격지수(2010=100): ('26.3월) 130.6 → (4월) 146.7 → (5월) 133.9
 - 에너지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3월) 37.4 → (4월) 66.9 → (5월) 59.3

■ 2026년 5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 원유 가격은 100.4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0.1% 상승, 전월대비 3.4% 하락
 - 원유가격(달러/bbl): ('26.3월) 95.6 → (4월) 103.9 → (5월) 100.4
 - 원유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35.2 → (4월) 57.7 → (5월) 60.1

| 그림 1 | 원유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 표 1 | 원유 가격 동향

(단위: 달러/bbl, %)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5월	3월	4월	5월		
Brent	64.2	103.7	120.4	107.5	67.5	-10.7
Dubai	63.0	91.9	92.7	94.7	50.2	2.1
WTI	61.0	91.2	98.6	99.1	62.4	0.5
평균 ¹⁾	62.7	95.6	103.9	100.4	60.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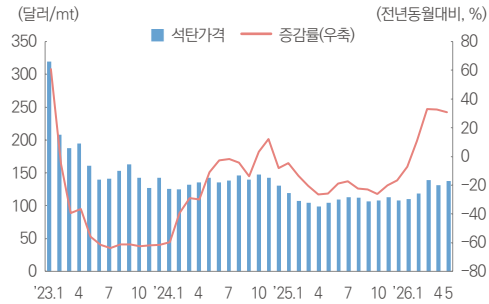
주: 1) Brent, Dubai, WTI의 평균

자료: 세계은행

■ 2026년 5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석탄 가격은 톤당 136.9달러(호주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31.1%, 전월대비 4.5% 상승
 - 석탄 가격(달러/mt): ('26.3월) 138.6 → (4월) 130.9 → (5월) 136.9
 - 석탄 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33.3 → (4월) 32.8 → (5월) 31.1

| 그림 2 | 석탄 가격 추이



주: 호주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2 | 석탄 원산지별 가격 동향

(단위: 달러/m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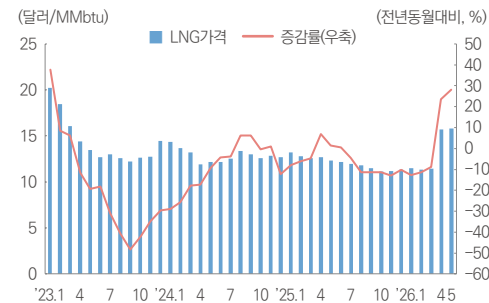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5월	3월	4월	5월		
호주	104.4	138.6	130.9	136.9	31.1	4.5
남아프리카	94.3	93.8	94.8	95.6	1.3	0.8
평균	99.4	116.2	112.9	116.2	16.9	3.0

자료: 세계은행

■ 2026년 5월 중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천연가스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2% 증가, 전월대비 4.9% 증가
 - 천연가스가격지수(2010=100): ('26.3월) 130.0 → (4월) 117.4 → (5월) 123.2
 - 천연가스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3월) 7.0 → (4월) 11.9 → (5월) 21.2
-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15.8달러(일본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28.0%, 전월대비 0.8% 상승
 - 액화천연가스가격(달러/MMbtu): ('26.3월) 11.4 → (4월) 15.7 → (5월) 15.8
 - 액화천연가스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9.0 → (4월) 23.4 → (5월) 28.0

| 그림 3 | LNG 가격 추이



주: 일본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3 | LNG 가격 동향

(단위: 달러/MMBt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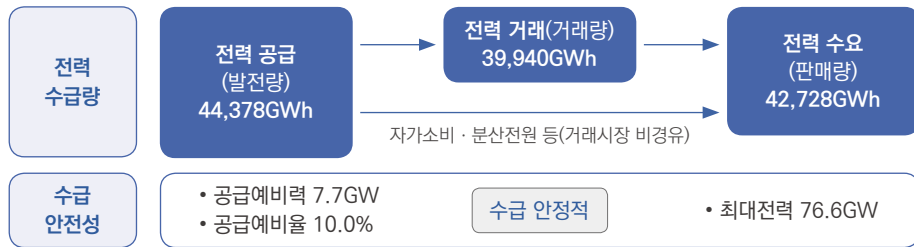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5월	3월	4월			5월
미국 (Henry Hub)	3.1	3.1	2.8	2.9	-5.9	5.8
유럽 (TTF)	11.7	17.9	15.4	16.2	38.6	4.9
일본 (JKM)	12.3	11.4	15.7	15.8	28.0	0.8

자료: 세계은행

2

전력⁶⁾

| 그림 4 | 전력 공급 및 시장 거래 흐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4월 전력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량」, 「거래량」, 「판매량」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

- 냉난방 수요가 적은 계절적 특성으로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판매량, 거래량 및 발전량이 모두 감소
- 발전량은 44,378GWh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기저발전 비중은 55.6%를 차지
 - 발전량(GWh): ('26.2월) 45,942 → (3월) 47,974 → (4월) 44,378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2월) -6.4 → (3월) -1.2 → (4월) -0.4
 - 1~4월 누적 발전량은 193,443GWh로 전년(194,616GWh) 수준을 소폭 하회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전원믹스)은 원자력 30.7%, 가스 28.5%, 석탄 24.9%, 신재생 14.5% 순이며, 기저발전⁷⁾ 비중은 55.6%로 나타남
 - 봄철에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규제의 영향으로 석탄발전 출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스발전은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발전 비중이 전월(32.0%) 대비 감소

6) 전력 동향에서 사용되는 주요 단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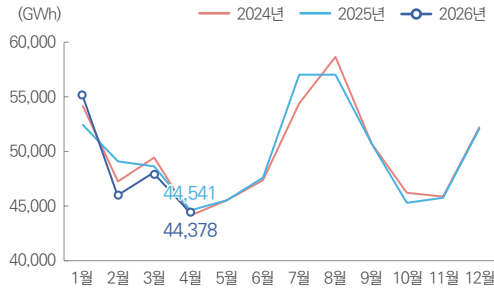
· 전력(Power, 단위: W, kW, MW, GW)은 일정 시점에서의 전기 사용 세기(출력)를 의미하며, 주로 발전설비의 설치용량이나 순간 최대수요를 나타낼 때 사용됨

· 전력량(Energy, 단위: Wh, kWh, MWh, GWh)은 전력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누적량으로, 국가 간 전력의 생산·거래·판매 등 에너지 총량을 집계하는 데 활용됨

· 개념적으로 전력은 물의 흐름의 세기(수압)에,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 축적된 물의 양에 각각 비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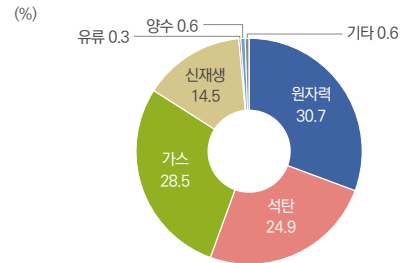
7) 기저발전은 전력수요의 기초부하를 담당하기 위해 24시간 안정적으로 연속 운전되는 발전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원자력 및 석탄발전이 이에 해당함

| 그림 5 | 월별 발전량(전력공급)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그림 6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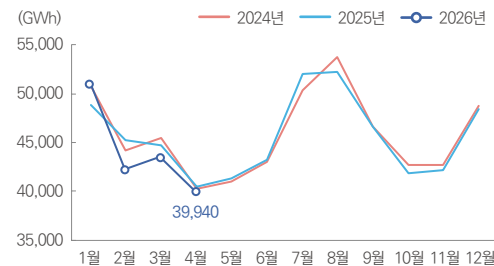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전력거래량⁸⁾은 39,940GWh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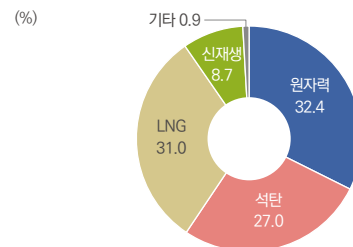
- 전력거래량(GWh): ('26.2월) 42,159 → (3월) 43,527 → (4월) 39,940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2월) -6.7 → (3월) -2.6 → (4월) -1.1
- 1~4월 누적 거래량은 176,698GWh로 전년(179,114GWh) 수준을 소폭 하회
- 연료원별 비중은 원자력 32.4%, LNG 31.0%, 석탄 27.0%, 신재생 8.7% 순

| 그림 7 | 월별 전력 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8 | 연료원별 거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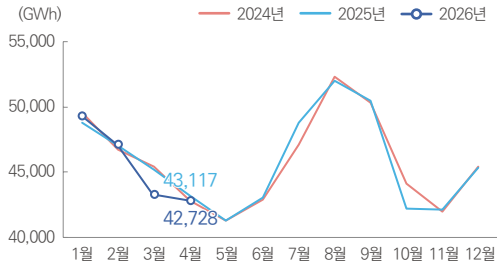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전력판매량은 42,728GWh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 전력판매량(GWh): ('26.2월) 47,136 → (3월) 43,254 → (4월) 42,728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2월) 0.2 → (3월) -4.2 → (4월) -0.9
- 1~4월 누적 전력판매량은 182,470GWh로 전년대비 0.9% 감소
-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제조업 47.7%, 서비스업 29.1%, 가정용 14.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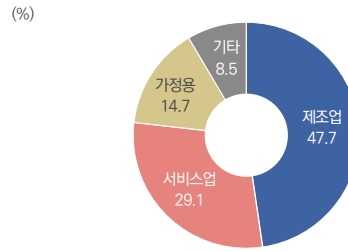
8)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거래량(PPA거래량 불포함)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 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그림 9 | 월별 전력 판매량(전력수요)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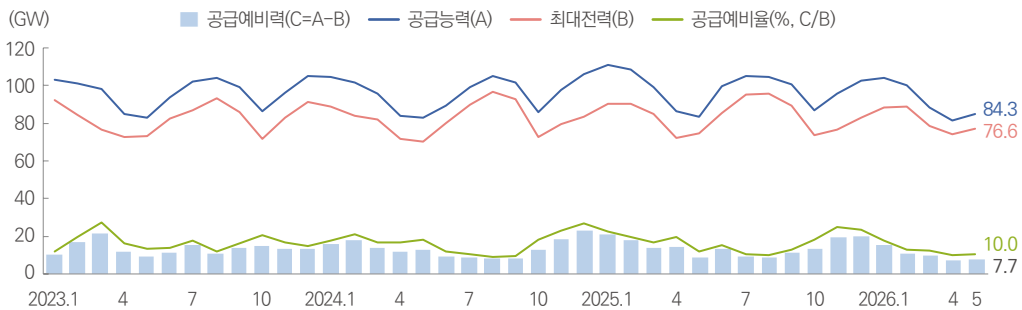
| 그림 10 | 용도별 전력 소비 비중

주: 기타는 공공용, 농수산업, 광업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5월 전력 수급 안정성은 「최대전력」, 「공급예비력」, 「공급예비율」 등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최대전력은 76.6GW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최대전력(GW): ('26.3월) 78.4 → (4월) 73.6 → (5월) 76.6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3월) -7.9 → (4월) 2.7 → (5월) 3.2
- 공급예비력은 7.7GW, 전력공급예비율은 10.0%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⁹⁾
 - 공급예비력(GW): ('26.3월) 9.6 → (4월) 7.1 → (5월) 7.7
 - 공급예비율(%): ('26.3월) 12.3 → (4월) 9.7 → (5월) 10.0

| 그림 11 | 전력 수급 안정성 지표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9)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5월 「연료비단가」는 LNG가 하락하고 원자력이 상승하였으며, 4월 「전력도매가격 (SMP)」, 「정산단가」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판매단가」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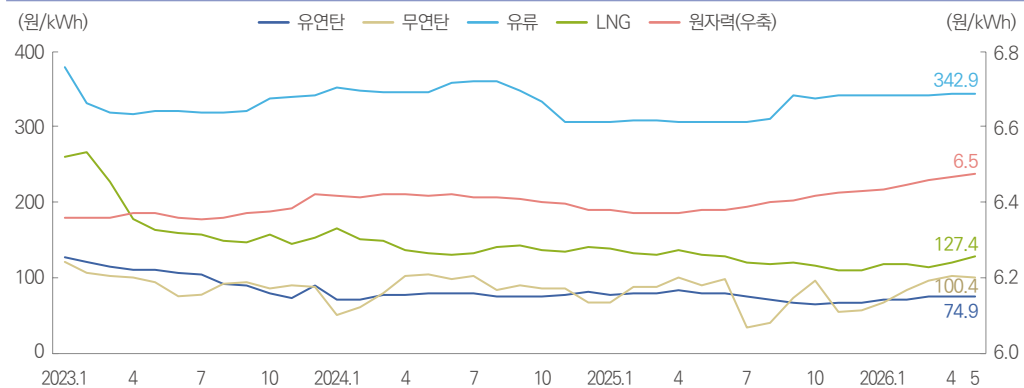
| 그림 12 | 전력시장 주요 가격 지표 흐름



주: 가격지표 변동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5월 발전사가 연료 공급사로부터 구입한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는 전년동월대비 유연탄, LNG는 하락한 반면, 원자력, 무연탄, 유류는 상승
 - 연료비단가(원/kWh): (원자력)6.5, (유연탄)74.9, (무연탄)100.4, (유류)342.9, (LNG)127.4
 - 연료비단가(전년동월대비, %): (원자력)1.5, (유연탄)-5.0, (무연탄)11.5, (유류)11.4, (LNG)-2.8

| 그림 13 |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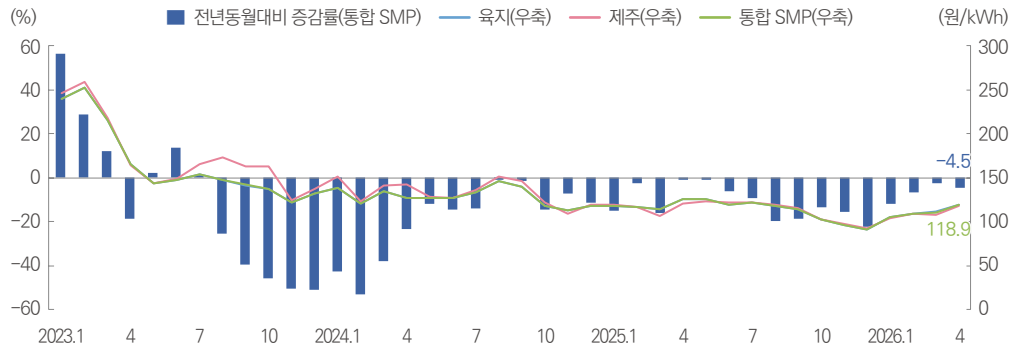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4월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시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kWh당 118.9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5% 하락

- 통합 SMP(원/kWh): ('26.2월) 108.5 → (3월) 110.0 → (4월) 118.9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2월) -6.8 → (3월) -2.7 → (4월) -4.5

| 그림 14 | 계통한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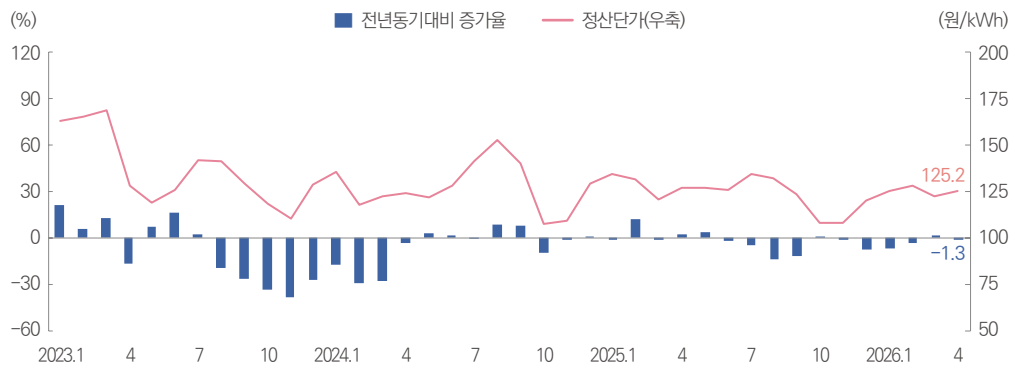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4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kWh당 정산단가는 125.2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 하락

- 정산단가(원/kWh): ('26.2월) 127.6 → (3월) 122.2 → (4월) 125.2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6.2월) -2.9 → (3월) 1.5 → (4월) -1.3

| 그림 15 | 정산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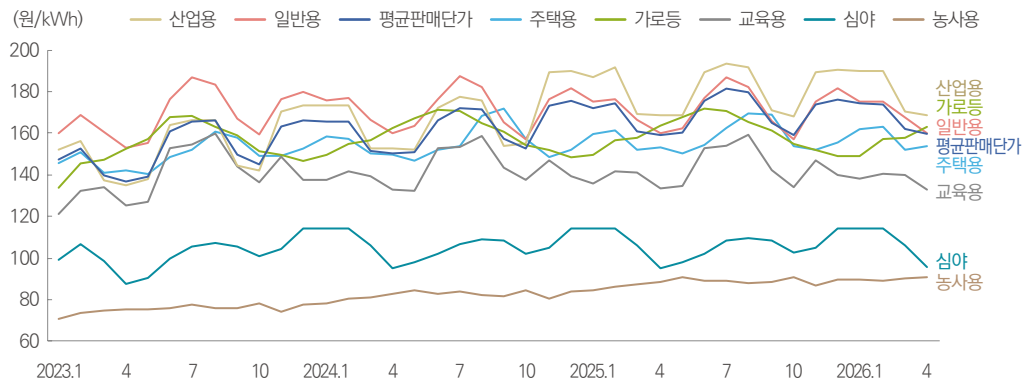


주: 정산단가 = (거래금액 - RPS의무이행비용 - 예측제도정산금) ÷ 거래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4월 한국전력의 kWh당 평균 판매단가는 산업용 판매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및 주택용 판매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159.5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 판매단가(원/kWh): ('26.2월) 173.9 → (3월) 161.9 → (4월) 159.5
 - 판매단가(전년동월대비 증감율, %): ('26.2월) -0.4 → (3월) 0.6 → (4월) 0.1
 - 1월~4월 누적 판매단가: 169.7원/kWh(전년 동기간 대비 1.6% 상승)
 - 계약종별 kWh당 판매단가는 산업용(168.6원)은 전년동기대비 0.1% 하락, 일반용(159.7원)은 0.2% 상승, 주택용(153.5원)은 0.1% 상승
 - 산업용 판매단가(원/kWh): ('26.2월) 190.1 → (3월) 170.6 → (4월) 168.6
 - 일반용 판매단가(원/kWh): ('26.2월) 175.1 → (3월) 167.3 → (4월) 159.7
 - 주택용 판매단가(원/kWh): ('26.2월) 163.4 → (3월) 152.0 → (4월) 153.5

| 그림 16 | 계약종별 전력 판매단가



주: 일반용은 주택·산업용 등 타 종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및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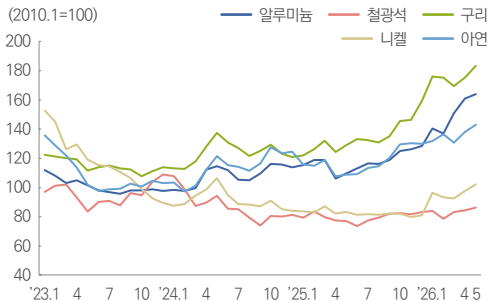
3

비철금속

■ 2026년 5월 「비철금속」 가격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

- 비철금속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3.7%, 전년동월대비 39.3% 상승
 - 비철금속 가격지수(2010=100): ('26.3월) 137.6 → (4월) 143.6 → (5월) 148.8
 - 비철금속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3월) 23.0 → (4월) 38.1 → (5월) 39.3
- 알루미늄 가격은 전월대비 1.8%, 전년동월대비 49.7% 상승
 - 알루미늄 가격(달러/톤): ('26.3월) 3,373 → (4월) 3,600 → (5월) 3,666
 - 알루미늄 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26.9 → (4월) 51.8 → (5월) 49.7
- 철광석 가격은 전월대비 2.4%, 전년동월대비 12.0% 상승
 - 철광석 가격(달러/톤): ('26.3월) 104 → (4월) 106 → (5월) 109
 - 철광석 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4.3 → (4월) 9.1 → (5월) 12.0
- 구리 가격은 전월대비 4.6%, 전년동월대비 42.1% 상승
 - 구리 가격(달러/톤): ('26.3월) 12,529 → (4월) 12,951 → (5월) 13,543
 - 구리 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28.6 → (4월) 41.1 → (5월) 42.1
- 니켈 가격은 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22.5% 상승
 - 니켈 가격(달러/톤): ('26.3월) 17,076 → (4월) 17,962 → (5월) 18,806
 - 니켈 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6.3 → (4월) 18.8 → (5월) 22.5
- 아연 가격은 전월대비 3.5%, 전년동월대비 31.7% 상승
 - 아연 가격(달러/톤): ('26.3월) 3,182 → (4월) 3,364 → (5월) 3,482
 - 아연 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10.1 → (4월) 28.3 → (5월) 31.7

| 그림 17 | 비철금속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LME

| 표 4 | 비철금속 가격 동향

구분	2025				2026	
	5월	3월	4월	5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알루미늄	2,449	3,373	3,600	3,666	49.7	1.8
철광석	97	104	106	109	12.0	2.4
구리	9,533	12,529	12,951	13,543	42.1	4.6
니켈	15,346	17,076	17,962	18,806	22.5	4.7
아연	2,644	3,182	3,364	3,482	31.7	3.5

자료: 세계은행, L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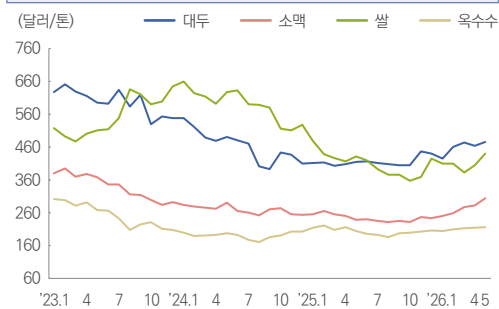
4

곡물

■ 2026년 5월 「곡물」 가격은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

-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9%, 전년동월대비 11.5% 상승
 - 곡물 가격지수(2010=100): ('26.3월) 117 → (4월) 119 → (5월) 121
 - 곡물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3월) 5.2 → (4월) 7.4 → (5월) 11.5
- 옥수수 가격은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6.0% 상승
 - 옥수수 가격(달러/톤): ('26.3월) 213 → (4월) 214 → (5월) 216
 - 옥수수 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2.5 → (4월) -0.5 → (5월) 6.0
- 대두 가격은 전월대비 2.5%, 전년동월대비 14.5% 상승
 - 대두 가격(달러/톤): ('26.3월) 473 → (4월) 463 → (5월) 474
 - 대두 가격(전년동월대비, %) : ('26.3월) 17.8 → (4월) 13.5 → (5월) 14.5
- 소맥 가격은 전월대비 7.4%, 전년동월대비 27.8% 상승
 - 소맥 가격(달러/톤): ('26.3월) 276 → (4월) 282 → (5월) 303
 - 소맥 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8.1 → (4월) 13.0 → (5월) 27.8
- 쌀 가격은 전월대비 9.2%,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쌀 가격(달러/톤): ('26.3월) 381 → (4월) 403 → (5월) 440
 - 쌀 가격(전년동월대비, %): ('26.3월) -10.4 → (4월) -2.9 → (5월) 2.1

| 그림 18 | 곡물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ME

| 표 5 | 곡물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5	2026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5월	3월	4월	5월		
옥수수	204	213	214	216	6.0	1.0
대두	414	473	463	474	14.5	2.5
소맥	237	276	282	303	27.8	7.4
쌀	431	381	403	440	2.1	9.2

자료: 세계은행, CME

IV

환경

1

배출권거래¹⁰⁾

■ 4월 「지표배출권(KAU25)」의 전월대비 평균가와 종가는 모두 상승

- KAU25¹¹⁾ 평균가는 톤당 16,632원으로 전월(15,187원) 대비 1,445원 상승
 - KAU25 평균가(원/톤): ('26.2월) 12,723 → (3월) 15,187 → (4월) 16,632
 - 2025년 배출권(KAU25) 정산 기간(6~8월) 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¹²⁾한 가운데,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총량 축소 및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배출권 확보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세 지속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에 따른 탄소비용 증가 전망이 기업의 배출권 확보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¹³⁾
- KAU25 종가는 톤당 17,050원으로 전월(15,600원) 대비 1,450원 상승
 - KAU25 종가(원/톤): ('26.2월) 13,750 → (3월) 15,600 → (4월) 17,050
- KAU25의 최저가는 톤당 15,900원('26.4.1), 최고가는 17,400원('26.4.9)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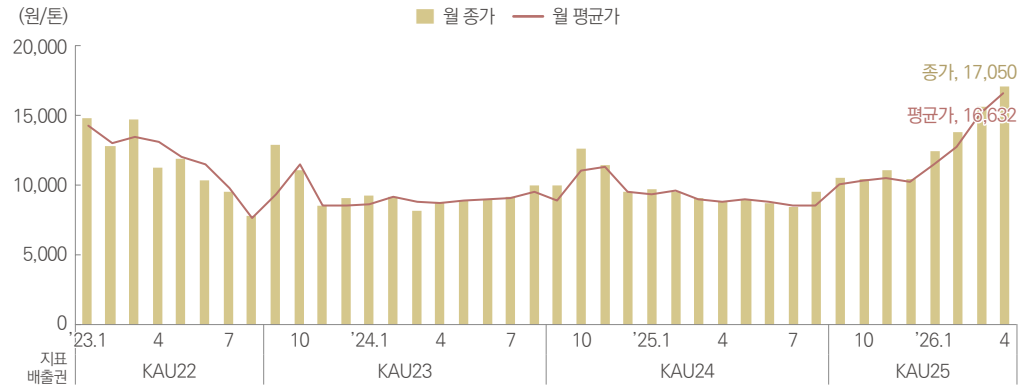
10)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은 ① 할당 배출권(KAU) ② 상쇄배출권(KCU)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구분되며 『NABO 산업동향&이슈』에서는 주요 배출권인 할당 배출권인 KAU를 살펴봄

11) 배출권거래에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이며, 1KAU는 이산화탄소(CO₂) 1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의미. KAU 뒤에 붙는 숫자는 해당연도의 탄소배출권을 나타냄

12) 강희중, "반년 새 2.5배 폭등한 탄소배출권…전기요금 압박 커진다[디지털에너지]", 아시아경제, 2026.6.12.

13) 강인선, "안 오르는 게 없다" 탄소배출권마저 59% 급등…울고 싶은 철강업계", 매일경제, 2026.4.24.

| 그림 1 | 배출권 장내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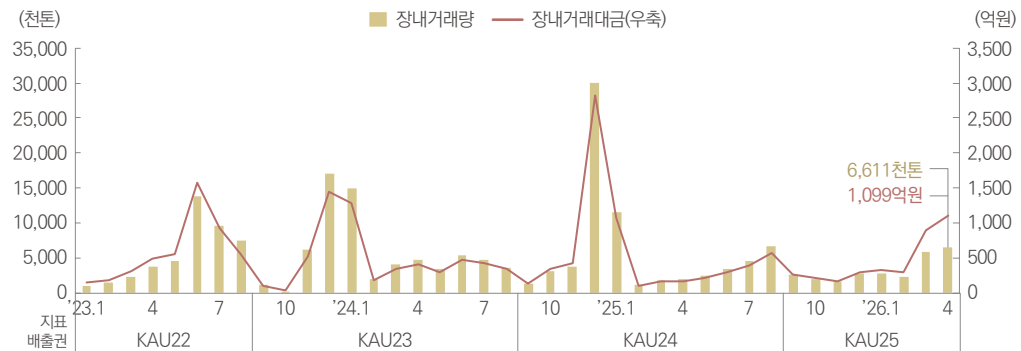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4월 「지표배출권(KAU25)」의 전월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모두 증가

- KAU25의 거래량은 8,728천톤으로 전월대비 1,670천톤 증가
 - KAU25 거래량(천톤): ('26.2월) 3,472 → (3월) 7,058 → (4월) 8,728
- KAU25의 장내거래량은 6,611천톤, 유상할당(경매)량은 1,200천톤, 장외거래량은 917천톤
 - KAU25 장내거래량(천톤): ('26.2월) 2,272 → (3월) 5,858 → (4월) 6,611
- KAU25의 거래대금은 1,451억원으로 전월대비 380억원 증가
 - KAU25 거래대금(억원): ('26.2월) 441 → (3월) 1,071 → (4월) 1,451
- KAU25의 장내거래 대금은 1,099억원, 유상할당(경매) 대금은 212억원, 장외거래 대금은 139억원
 - KAU25 장내거래대금(억원): ('26.2월) 289 → (3월) 890 → (4월) 1,099

| 그림 2 | 배출권 장내 거래량 및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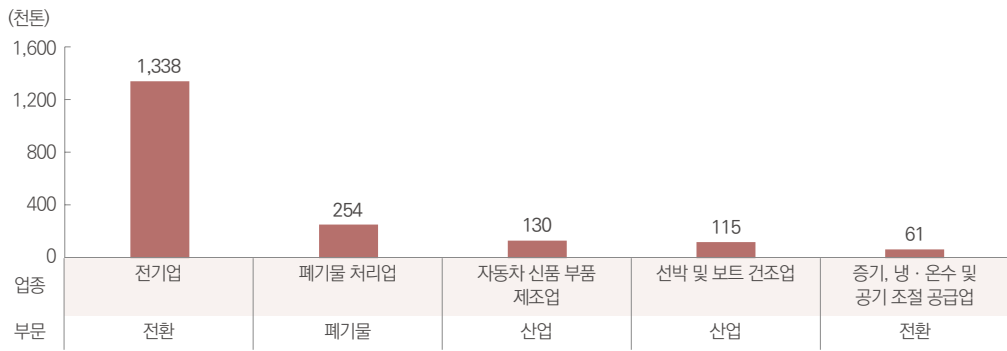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4월 업종별 장내거래 최대 매수업은 전기업, 최대 매도업은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①전기업, ②폐기물 처리업, ③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순
 - 업종별 매수량(천톤): 전기업(1,338), 폐기물 처리업(254),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130)
 -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2026년 15% → 2030년 25%)됨에 따라 발전 및 산업 부문의 배출권 확보 수요가 증가¹⁴⁾
 - 특히, 배출권 부족이 예상되는 발전사를 중심으로 당해연도뿐 아니라 차년도 수요를 고려한 선제적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전기업의 매수세가 확대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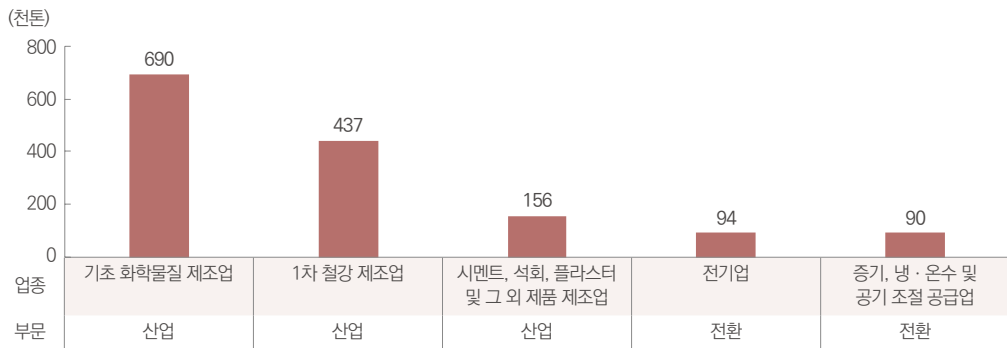
그림 3 | 매수 상위업종



주: KAU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매도 상위 3개 업종은 ①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②1차 철강 제조업, ③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순
 - 업종별 매도량(천톤):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690), 1차 철강 제조업(437),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156)

그림 4 | 매도 상위업종



주: KAU24, 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14) 강희중, "반년 새 2.5배 폭등한 탄소배출권...전기요금 압박 커진다[디깅에너지]", 아시아경제, 2026.6.12.

15) 오유진,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에 시장 혼란...변동성 확대 경고", 전기신문, 2026.6.11.

2

재활용가능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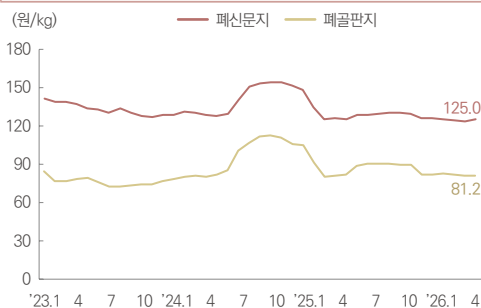
■ 5월 조사일¹⁶⁾ 기준 「국내 폐지」 평균가격은 폐신문지는 상승하고 폐골판지는 전월 수준을 유지

- 폐신문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4원 상승하여 125.0원
 - 폐신문지(원/kg): ('26.3월) 124.7 → (4월) 123.6 → (5월) 125.0
- 폐골판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1원 상승하여 81.2원
 - 폐골판지(원/kg): ('26.3월) 81.5 → (4월) 81.1 → (5월) 81.2

■ 「국내 폐플라스틱」 평균가격은 PET 압축, PP(플레이크), EPS 잉고트, PP(펠렛)이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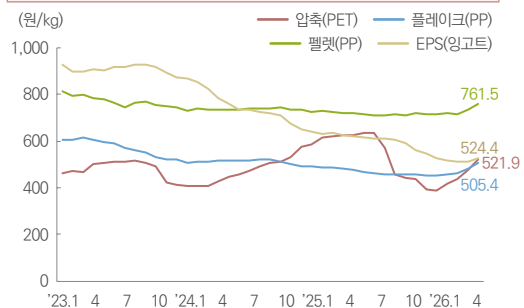
- PET¹⁷⁾ 압축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46.7원 상승하여 521.9원
 - PET 압축(원/kg): ('26.3월) 436.3 → (4월) 475.2 → (5월) 521.9
- PP¹⁸⁾ 플레이크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3.3원 상승하여 505.4원
 - PP 플레이크(원/kg): ('26.3월) 461.7 → (4월) 482.1 → (5월) 505.4
- PP 펠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5.1원 상승하여 761.5원
 - PP 펠렛(원/kg): ('26.3월) 713.4 → (4월) 736.4 → (5월) 761.5
- EPS¹⁹⁾ 잉고트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2.7원 상승하여 524.4원
 - EPS 잉고트(원/kg): ('26.3월) 512.9 → (4월) 511.7 → (5월) 524.4

| 그림 5 | 전국 폐지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그림 6 | 전국 폐플라스틱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16) 한국환경공단은 매월 10일 5종 26개 품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행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를 발표

17)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은 무색이며 단단하고 충격에도 비교적 강한 플라스틱으로 음료수병, 생수병 등으로 활용

18) PP(Polypropylene)는 가벼우며,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으로 주류, 음료 상자 등으로 활용

19) EPS(Expanded Polystyrene)는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한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 제품으로 흔히 스티로폼(상품명)이라 부르며 단열재, 전자제품, 식품 포장 등으로 활용

■ 「폐유리병」 평균가격은 백색과 청록색은 하락, 갈색은 상승

- 유리병(백색) 컬렛²⁰⁾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3원 하락하여 134.6원
 - 유리병(백색) 컬렛(원/kg): ('26.3월) 137.4 → (4월) 135.9 → (5월) 134.6
- 유리병(갈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5원 상승하여 79.1원
 - 유리병(갈색) 컬렛(원/kg): ('26.3월) 79.1 → (4월) 77.6 → (5월) 79.1
- 유리병(청록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3원 하락하여 43.1원
 - 유리병(청록색) 컬렛(원/kg): ('26.3월) 45.9 → (4월) 44.4 → (5월)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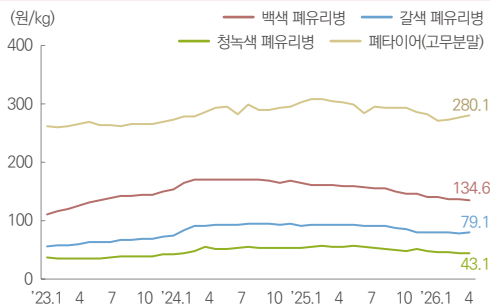
■ 「페타이어(고무분말)」 평균가격은 상승

- 페타이어(고무분말)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4.5원 상승한 280.1원
 - 페타이어(고무분말, 원/kg): ('26.3월) 272.5 → (4월) 275.6 → (5월) 280.1

■ 「폐금속」 평균가격은 철스크랩, 철캔, 알루미늄캔이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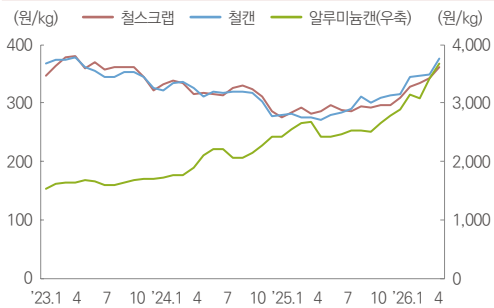
- 철스크랩²¹⁾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9.7원 상승하여 361.3원
 - 철스크랩(원/kg): ('26.3월) 334.6 → (4월) 341.6 → (5월) 361.3
- 철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8.3원 상승하여 376.5원
 - 철캔(원/kg): ('26.3월) 347.7 → (4월) 348.2 → (5월) 376.5
- 알루미늄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38.4원 상승하여 3,672.7원
 - 알루미늄캔(원/kg): ('26.3월) 3,094.8 → (4월) 3,434.3 → (5월) 3,672.7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신재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²²⁾하면서, 대체재인 재활용 알루미늄의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

| 그림 7 | 전국 폐유리병 및 페타이어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그림 8 | 전국 폐금속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 컬렛(Cullet)은 유리병을 일정 크기로 파쇄한 상태

21) 철스크랩은 사용 후 폐기된 철강 제품이나 철을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고철이라고도 함

22) 조현우, "가격 인하 압박 이어 '캔' 알루미늄 가격 폭등...주류·음료업계 '깊은 한숨'", 뉴데일리경제, 2026.4.2.



산업 이슈

사업용 차량의 전기차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택시를 중심으로 -

산업자원분석과 | 조은영 분석관

1

검토배경

■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나 온실가스배출 감소 실적은 미흡

-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4년 기준으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4.1%인 97.5백만tCO₂eq로, 이 중 도로수송이 약 96.5%를 차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기차 캐즘 현상, 하이브리드와 대형 SUV를 중심으로 차량이 증가하면서 2024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0.3% 감소에 그침

■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¹⁾을 늘리고 있으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제한적

- 2030 NDC에서 2035 NDC로 개편되면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대폭 상향되었으나 온실가스 배출구조의 분산성²⁾, 수송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 2035 NDC의 수송부문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순배출량의 60.2~62.8% 감축으로, 2030 NDC(2018년 대비 순배출량의 37.8% 감축)에 비해 상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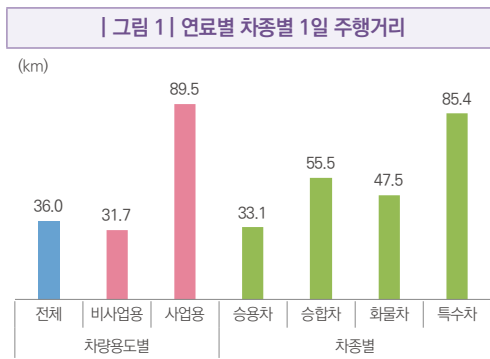
■ 도로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주행 거리가 길고 탄소배출 집약도가 높은 사업용 차량, 특히 택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 사업용 차량은 2025년 약 202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8.3%를 차지하지만, 2024년 1일 평균 주행 거리는 89.5km로 비사업용 차량(31.7km)에 비해 2.8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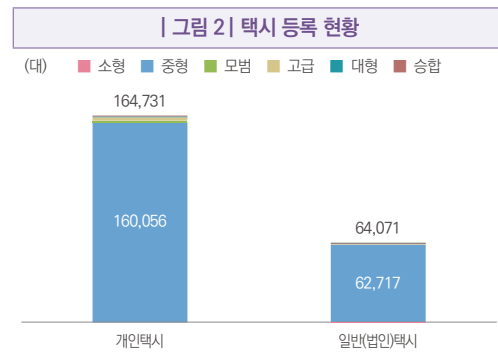
1)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액은 2016년 2,129억원에서 2026.2조 1,409억원으로 증가

2) 수송부문은 수많은 개별 차량과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집행과 모니터링 비용이 높고 탄소가격제나 규제의 효과가 분산되어 있어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음. 정부가 유류세나 탄소세를 인상하더라도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 경쟁을 이유로 마진을 낮출 경우, 택시업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그 효과가 상쇄됨

- 택시는 전체 등록 차량(약 2,600만대)의 0.88%(22.9만대)³⁾에 불과하지만, 비사업용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음
 - 개인택시는 약 16.5만대, 일반(법인)택시는 6.4만대로 구성
 -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연간 주행거리는 각각 8~9만km, 5~6만km로 비사업용 승용차 연간 주행거리(1.2~1.3만km)에 비해 높음
 - 택시의 경우 도심 주행에 따른 공회전, 20~30%에 달하는 공차율, 대부분 등록차량의 LPG 연료 사용 등으로 탄소배출 집약도가 높은 편
- 전기 택시는 사업용 화물차에 비해 전비가 높아 온실가스 감축에 유리⁴⁾
 - 화물차의 경우 운송거리는 택시에 비해 길지만⁵⁾ 공기저항을 받는 차체, 적재중량에 따른 에너지 소모 증가, 도심 주행에 비해 고속도로 주행에서 나타나는 전비 급감 현상으로 전기차 전환보다 수소차 전환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⁶⁾



주: 2024년 기준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주: 2025년 기준
자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본 현안에서는 택시의 전기차 전환의 제약요인을 경제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전기차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택시의 전기차 전환의 제약요인은 급속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 등도 있으나 경제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설문조사됨⁷⁾
- 택시 차종별 총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을 비교해 봄으로써 경제성을 판단하고자 함
 - 총소유비용은 자산의 초기 구매가격 뿐만 아니라 연료비, 유지보수, 보험료 등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임

3) 2026년 4월 기준 면허대수는 24.6만대, 등록대수는 22.9만대임 <https://gntx.kr/information/information_02.php, 접속일자:2026.5.21.>

4) 전기승용차의 평균 전비는 2024년 4.96km/kWh로, 전기화물차의 평균 전비(3.16km/kWh)를 상회(한국에너지공단, 「2025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분석집」, 2025. 4쪽.)

5) 「화물운송시장 동향 2025년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의 일평균 총운행거리는 230.5km, 중형 화물차는 287.8km, 대형화물차는 394.0km, 특수운송화물차는 390.0km로 나타남

6) 김규승, 성홍모, 신민성, 「도로화물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정책 방안 연구 - 친환경 수단 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교통연구원, 2023.

7) 47개 택시업체와 102개의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기 택시 도입의 장애요인으로 초기투자비 과대, 차량 운영상의 제약, 차량 정비 및 A/S문제의 순으로 나타남(한중학, 「인천광역시 전기택시 도입방안」, 인천연구원, 2019, 5~6쪽)

2

택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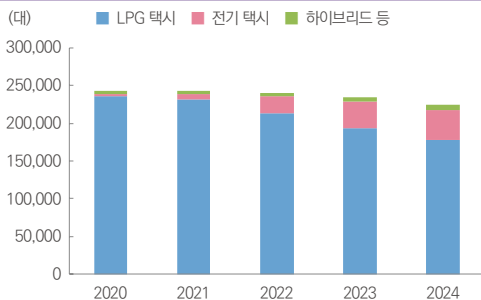
■ 택시 등록 대수는 감차 사업 등으로 2024년 약 23만대로 감소하였으나 전기 택시는 증가

- LPG 택시가 2024년 기준 81.2%, 전기 택시가 15.9%, 하이브리드 및 기타 택시가 2.9%를 차지

■ 택시의 전기차 전환은 2021~2023년 상반기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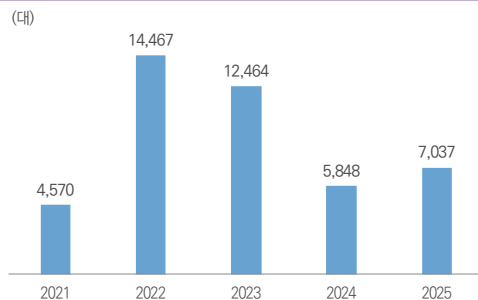
- 택시의 전기차 전환은 친환경차에 대해 2021~2022년 부제⁸⁾ 예외와 일반 전기차보다 200~300만원 많은 택시 전용 추가 보조금 정책이 맞물리며 2021년 4,570대에서 2022년과 2023년 14,467대, 12,464대로 증가
 - 택시 부제는 강제휴무제로, 주로 법인택시나 일부 지역의 개인택시에서 기사들의 누적 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차량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됨
 - 2020년 11월 24일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차에 대해 택시 부제의 예외가 허용됨⁹⁾
- 2023년 하반기 이후 캐즘 현상, 택시 부제의 해제 및 자율화와 더불어 구매·운행·유지 측면에서 LPG 차량에 비해 편익이 감소하면서 전기택시 보급 대수가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2024년 5,848대, 2025년 7,037대로 감소
 - 2022년 11월 22일부터 심야 택시 부족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제가 해제되거나 자율화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됨

| 그림 3 | 연료별 택시 현황



주: 2024년 등록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4 | 전기 택시 신규 보급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8) 예를 들면, 3부제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5부제는 4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해야 함

9) 국토부 행정규칙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소형·고급형 택시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음(2020년 11월 24일 개정)

3

택시 차종별 총소유비용 분석

가. 분석 가정 및 전기차 특징

■ 개인택시 평균 주행거리(5년 누적 40만km)를 기준¹⁰⁾으로 전기 택시, 하이브리드 택시, LPG 택시의 총소유비용(TCO)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

- 중형(배기량 2,400cc미만)을 중심으로 차종별 총소유비용(TCO)은 아래와 같이 구성
 - 총소유비용 = 초기 구매 비용 + 연료·충전비 + 자동차세 + 유지보수비 + 보험료
 - 모든 차종의 5년 후 잔존가치를 0원인 것으로 가정
- 개인택시(7년)와 법인택시(4년)의 중간 연한인 5년에 서울시의 차령 연장 기준인 약 40만km 주행을 기준으로 분석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기모터, 경량화된 차체, ECU¹¹⁾와 OTA¹²⁾ 등 고성능 전장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높음

-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데, 에너지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이 대용량 사용되고 고출력을 내기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 등이 활용됨¹³⁾
- 전기차는 배터리가 400~500kg에 달하기 때문에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일반 철판 대신 알루미늄 합금이나 초고장력 강판 같은 고가의 경량화된 소재를 적용
- 겨울철 주행거리 저하를 막기 위한 히트펌프 시스템과 배터리 냉각·가열 장치를 포함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연한(차령)은 차종, 사업구분,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1~2년 연장이 가능

승용차 구분	개인택시	일반(법인)택시
경형 및 소형	5년	3년 6개월
중형(배기량 2,400cc 미만)	7년	4년
대형(배기량 2,400cc 이상)	9년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9년	6년

11) 전자 제어 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ECU)는 자동차의 다양한 전기·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차량용 전자제어장치로, 센서로부터 차량의 상태(속도, 온도, 압력 등)를 입력받아 분석한 뒤,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 각 장치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명령을 내림

12) 무선 업데이트(Over The Air, OTA)는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전기차 등에서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무선 통신망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OS 업데이트,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 개선 및 성능 업그레이드에 활용됨

13) 전자들이 저항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탄소나노튜브(CNT) 같은 고가의 도전재를 추가해야 하고, 집전체(구리박, 알루미늄박)의 두께를 극도로 얇고 균일하게 가공하면서 비용이 증가

나. 초기 구매가격

■ 전기 택시의 차량 구매 비용이 국고와 지자체로부터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고려 하더라도 내연기관차에 비해 격차를 보임

- 택시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음
- 자동차 취득세율은 공급가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합산의 4%이나 전기 택시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원)¹⁴⁾을 적용받고, LPG 택시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여객운송사업용 버스·택시에 대한 감면'에 따라 2% 적용받음¹⁵⁾
- 전기 택시의 경우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이하지만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여 약 700만원, 택시에 대한 추가 보조금 250만원이 지원됨
 - 참고로 2025년 기준 전기택시 보조금은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 택시 추가 보조금을 합하여 약 850만원으로, 일반승용차의 전기차 전환 보조금 보다 250만원 많았음
 - 2026년 전기차 전환 추진을 위해 내연기관차 폐차 및 매도 후 전기차 전환시 보조금 백만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가정
- 세제혜택 및 정부·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전기 택시는 중형차를 기준으로 약 1,821만원, 하이브리드 택시와 LPG 택시는 각각 약 460만원, 약 455만원 지원받음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최종 구매 비용의 경우 전기 택시가 3,357만원으로 LPG 택시 보다 약 948만원 추가 부담하게 됨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여객운송사업용 버스·택시에 대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50%)을 경감한다.

1.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 표 1 | 택시 차종별 구매 보조금 및 세제혜택 비교

(단위: 만원)

구분 항목		전기	하이브리드	LPG
세전 공급가(A)		4,265	2,685	2,359
개별 소비세	$B1=(A \times 5\%)$	213	134	118
	감면액(b)	213 (면제 한도 내 전액 면제)	134 (면제 한도 내 전액 면제)	118 (택시 면제 대상)
	납입액($B2=B1-b$)	0	0	0
교육세	$C1=(B1 \times 30\%)$	64	40	35
	감면액(c)	64 (면제 한도 내 전액 면제)	40 (면제 한도 내 전액 면제)	35 (택시 면제 대상)
	납입액($C2=C1-c$)	0	0	0원
부가 가치세	$D1=(A+B1+C1) \times 10\%$	454	286	236
	감면액(d)	454 (환급충족시)	286 (환급충족시)	236 (환급충족시)
	납입액($D2=D1-d$)	0	0	0
취득세	$E1=(A+B1+C1) \times 4\%$	182	114	100
	감면액(e)	140 (친환경차 최대 140만원 감면)	0	50 (영업용 택시 감면: $(A+B1+C1) \times 2\%$)
	납입액($E2=E1-e$)	42	114	50
정부·지자체 보조금(f)		700 (국고+지자체)	0	0
		250 (택시 추가 인센티브)		
최종 구매 비용 ($A+B2+C2+D2+E2-f$)		3,357	2,799	2,409

주: 1. LPG 차량은 쏘나타 택시트림, 하이브리드 차량은 쏘나타 디 엣지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EV6 롱레인지 라이트 트림을 기준으로 산출

2. 세전 공급가는 차량 옵션, 배송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가격

3. 5년동안 40만 km 주행을 기준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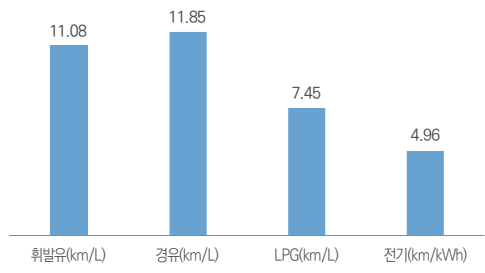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연료·충전비

■ 차종별 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내연기관 택시에 비해 연비가 높고 충전비가 저렴한 전기 택시가 가장 적고 LPG 택시, 하이브리드 택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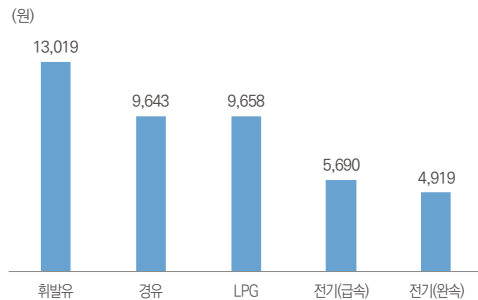
- 내연기관차의 경우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한 에너지가 변속기를 거쳐 바퀴로 전달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약 70 ~ 80%에 이르나 전기차의 경우 자기장을 이용해 바퀴를 회전시키므로 구동 효율이 높아 에너지 손실이 10 ~ 20% 임
- 연료별 평균 연비를 비교해 보면, 경유가 리터당 11.85km(2024 기준)로 가장 높고 휘발유(11.08km/L), LPG(7.45km/L)순이며 승용차의 전비는 kWh당 4.96km임¹⁶⁾
 - 다만,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의 경우 14.0km/L로 내연기관차에 비해 연비가 높은데, 이는 에너지 재활용, 엔진과 전기모터의 효율적인 동력 분배, 그리고 시내 주행 환경에서의 전기모터 중심 구동에 기인¹⁷⁾
- 100km 주행 시 소요되는 한계 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LPG의 경우 휘발유 가격의 74.2%, 전기차 충전의 경우 37.8 ~ 43.7%로 저렴

| 그림 5 | 연료별 평균 연비



주: 2024년 기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그림 6 | 100km 주행 기준 연료비 비교



주: 2024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6) 한국에너지공단, 「2025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 2025. 4쪽.

17) 하이브리드차는 감속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 즉, 일반 내연기관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마찰열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연비를 극대화함.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속 시 엔진에 모터가 힘을 보태어 엔진 부하를 줄여 효율을 높임. 도심 주행 시 정체 구간이나 저속 주행 시 엔진을 끄고 배터리 전력으로 모터만 구동하는 'EV 모드'를 활용함.

- 한편, LPG택시는 유가보조금을, 전기 택시의 충전보조금을 각각 지원 받음
 - LPG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에 의거하여 리터당 약 200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음
 - 유가보조금(약200원) = 유류세 인상분 환원 보조금(179.47원)¹⁸⁾ +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택시 간이과세자에게 부여되는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특례(23.39원)¹⁹⁾ + 금융권 유류구매카드 정책 멤버십 혜택 등
 - 전기 택시는 '전기 택시 전용 충전 보조금(바우처)' 제도에 의거 전기 택시 전용 충전카드로 환경부 및 지자체 제휴 충전기에서 급속 충전을 할 때, kWh당 약 30원~50원 선의 금액을 차감받게 됨
- 주행 비용을 비교해 보면, 전기 택시가 km당 60.5원으로 LPG 택시(99원)에 비해 약 38.9% 저렴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5년간 40만km 주행에 따른 연료비는 전기 택시가 2,420만원으로 가장 적고 LPG 택시(3,960만원), 하이브리드 택시(4,730만원)로 나타남
 - LPG 택시의 경우 유가보조금에 의해 약 980만원 절감 효과 발생
 - 비록 하이브리드 택시의 연비가 14.34km/L(2021~2024년 평균)로 LPG 택시(8.15km/L)에 비해 높지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96원으로 LPG(807원/L)에 비해 약 2배가 달하면서 연비 효과를 상쇄시킴

| 표 2 | 택시 차종별 연료비 비교

구분	전기	하이브리드	LPG
주행 가격 기준 (실지출 단가)	300원/kWh (급속충전 347.2원 - 바우처 47.2원) ¹⁾	1,696원/L ²⁾ (보조금 없음)	807원/L (1,007원 ²⁾ - 보조금 약 200원)
연비 또는 전비 ³⁾	4.96km/kWh	14.34km/L	8.15km/L
주행 비용(원/km)	60.5	118.3	99.0
총 연료비(백만원)	24.2	47.3	39.6

주: 1)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100~200kWh미만 급속충전비를, 바우처는 충전요금의 13.6%를 받는다고 가정

2) 2021년 5월 ~ 2026년 4월의 평균

3) 2021~2024년 평균

1. LPG 차량은 쏘나타 택시트림, 하이브리드 차량은 쏘나타 디 옛지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EV6 롱레인지 라이트 트림을 기준으로 산출

2. 5년동안 40만km 주행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공사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8) 유류세 인상분 환원 보조금(179.47원)은 유류세에서 23.29원(2002년 1월 세금)을 제외한 값임. 유류세는 차량용 LPG의 법정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부과금(리터당 약 36.4원)의 합으로 산출됨. 차량용 LPG의 법정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약 147.37원이나 2026년 현재 한시적 단력세율을 적용하여 리터당 120.3원임

19) 2001년 7월 「1차 에너지 세제 개편」이 단행되기 직전인 2001년 6월까지, 국내 차량용 LPG 1리터에 붙던 순수 세금(개소비세+교육세)의 총합이었음

라. 유지보수비

■ 전기 택시의 경우 구동방식의 구조적 단순함과 소모품 교체 주기의 차이로 인해 LPG 택시나 하이브리드 택시에 비해 정비 및 소모품비가 적게 소요

- LPG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엔진오일, 구동계 및 변속기, 미션오일, 점화플러그, 구동벨트 등이 일정 기간마다 교체 필요
- 전기차의 모터는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자기력이 발생해, 자석의 힘으로 가운데 있는 축을 부드럽게 밀어서 회전시키기 때문에 내연기관 고유의 소모품이 없으며 회생제동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수명이 연장됨
 -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 모터가 거꾸로 돌려 발전기 역할을 해 차를 세우는 '회생제동'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마모되지 않음
 - 다만, 배터리 무게로 인해 LPG 차량에 비해 고하중·고토크를 감당할 전용 타이어가 필요
- 하이브리드택시는 LPG택시와 같은 내연기관(가솔린 엔진)을 공유하므로 기본적인 엔진 정비비는 발생하지만, 회생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계통 소모품비가 절감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5년 동안 40만km 주행을 가정할 때, 전기 택시의 유지비는 약 1,016만원으로 LPG 택시(1,324만원)의 약 23.3% 절감하는 것으로 추정됨

| 표 3 | 택시 차종별 유지보수비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전기	하이브리드	LPG	산출 기준 및 소모품(교체 주기 가정)
엔진오일 세트	0	360	320	매 1만km 교체(LPG 회당 8만원, HEV 9만원)
구동계 및 변속기 오일	48	60	60	내연기관 10만km 주기, 전기차 감속기 오일 15만km 주기
점화플러그 및 코일	0	75	70	매 8만km 주기 교체(HEV는 부품 단가 소폭 높음)
구동 벨트 및 워터펌프	0	45	8	매 12만km 주기 교체(HEV는 HSG 시스템 점검 포함)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20	13	80	LPG 6만km 주기, 친환경차는 회생제동으로 마모 극소화
타이어 교체 (4본 기준)	600	333	333	내연기관 6만km 주기, 전기차는 고하중·고토크로 5만km 주기(EV 전용 타이어 사용)
하체 부품 및 일반 정비	348	441	453	노후 부싱류, 고전압/절연 냉각수 교체 등 장거리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1,016	1,327	1,324	전기 택시가 LPG 택시에 비해 유지보수비를 약 23.3% 절감

주: 1) Hybrid Starter Generator, 시동모터(Starter)와 발전기를 결합한 모터를 지칭

1. LPG 차량은 쏘나타 택시트림, 하이브리드 차량은 쏘나타 디 엡지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EV6 롱레인지 라이트 트림을 기준으로 산출
2. 5년동안 40만km 주행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각 자동차 제조사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총소유비용

■ 5년 동안 40만 km 주행을 가정할 때 전기 택시의 총소유비용이 LPG 택시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총소유비용을 산출한 결과, 하이브리드 택시가 9,910만원으로 가장 높고 LPG 택시 8,690만원, 전기 택시 8,230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 전기 택시의 초기 구매 비용은 구매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적용하더라도 LPG 택시에 비해 약 950만원 높으며 이를 낮은 충전비와 정비 및 소모품비가 상쇄
 - 하이브리드 택시의 연비 효율이 14.34km/L로 LPG 택시(8.15km/L)에 비해 우세하나 유가 보조금 등으로 인해 LPG 택시 연료비가 하이브리드 택시에 비해 약 770만원 적게 소요됨

| 표 4 | 택시 차종별 총소유비용(TCO)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전기	하이브리드	LPG
초기 구매 비용 (표1)	33.6	28.0	24.1
연료·충전비 (표2)	24.2	47.3	39.6
자동차세	0.1	0.2	0.2
유지보수비 (표3)	10.1	13.3	13.2
보험료	14.3	10.3	9.8
총소유비용	82.3	99.1	86.9

주: 1. LPG 차량은 쏘나타 택시트림, 하이브리드 차량은 쏘나타 디 엡지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EV6 롱레인지 라이트 트림을 기준으로 산출

2. 5년동안 40만km 주행을 기준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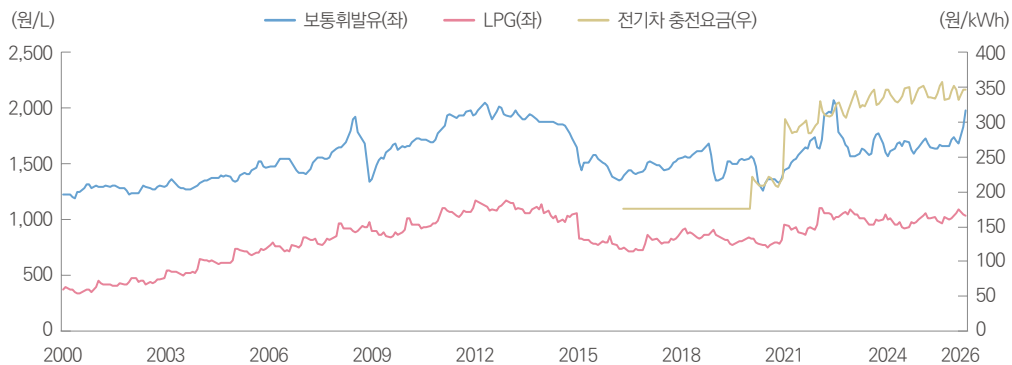
3

택시 차종별 총소유비용 민감도 분석

■ 전기 택시와 LPG 택시의 총소유비용이 비슷한 것은 구매보조금과 세제 혜택, 낮은 충전요금, LPG 유가보조금 등에 기인하므로, 향후 전기충전요금 인상에 따른 차종별 총소유비용을 비교

- 휘발유와 LPG 가격이 2월 말 중동전쟁 발발로 상승하였으나 충전 시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가정
 - 참고로, 휘발유가격은 4월말 1,986원으로 2월말(1,689원/L) 대비 17.6% 상승
 - 이에 따라 차량용 LPG 가격도 5월 기준 리터당 약 999원(정유사 공급가)으로 전월대비 5.4% 상승

| 그림 7 | 주유소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주: 휘발유와 LPG는 주유소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이고 전기차 충전요금은 급속충전요금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가격통계」,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차 충전요금이 10.4% 인상될 것으로 가정²⁰⁾
 - 전기차 충전요금은 2026년 하반기에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200kWh 이상이 347.1원/kWh에서 391.9원/kWh으로 인상될 예정²¹⁾

20) 급속충전 80%, 완속충전 20% 사용한다고 가정

2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공공 충전시설의 출력별(kWh) 구간을 현행 2단계에서 5개 구간으로 대폭 세분화하는 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공고 제2026-458호)

| 표 5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급속 충전기(100kWh급 이상 기준) 요금 추이

시기 및 요금	비고
2020년 이전 : 255.7원/kWh	정부의 전기차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 특례가 적용
2021년 7월 : 292.9원/kWh(약14.5% 인상)	정부의 특례할인률을 50%에서 25%로 축소
2022년 9월 : 347.2원/kWh (약18.5% 인상)	한전의 전기차 전용 특례 할인 제도가 일몰
2026년 하반기 이후: 100kWh ~ 200kW 미만(347.2원/kWh) 200kWh 이상(391.9원/kWh, 약 12.9%인상)	충전요금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

주: 100kWh 이상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기 택시의 총소유비용이 다소 증가하면서 LPG 택시의 총소유 비용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전기 택시의 총소유비용이 기존 보다 약 250만원 추가 발생

| 표 6 | 택시 차종별 총소유비용(TCO) 민감도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전기	하이브리드	LPG
초기 구매 비용	33.6	28.0	24.1
연료·충전비	변경후(A)	46.0	39.6
	변경전(B)		
	차이(A-B)		
자동차세	0.1	0.2	0.2
정비 및 소모품비	10.1	13.3	13.2
보험료	14.3	10.3	9.8
총소유비용	84.8	97.8	86.9

주: 1. LPG 차량은 쏘나타 택시트림, 하이브리드 차량은 K8 HEV, 전기차는 EV6 롱레인지 라이트 트림을 기준으로 산출

2. 5년동안 40만 km 주행을 기준으로 산출

4

요약 및 시사점

■ 도로수송 부문의 온실가스감축 정책수단으로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탄소배출 집약도와 전비가 높은 전기 택시 보급에 정책적 관심이 높으나 최근 보급률이 둔화

- LPG 택시의 전기차 전환시 제약요인으로 충전인프라의 부족,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 등도 있으나 경제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조사됨

■ 이에 5년간 40만km 주행을 가정하여 차종별 총소유비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전기 택시의 총소유비용이 LPG 택시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기 택시 총소유비용이 8,230만원으로, 높은 구매보조금 및 세제혜택, 저렴한 충전 요금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가격과 유가보조금을 받는 LPG 택시(8,690만원)에 비해 5.3% 낮음
- 하이브리드 택시의 총소유비용은 9,910만원으로 가장 높는데, 이는 하이브리드 택시의 연비가 14.34km/L로 LPG 택시(8.15km/L)보다 높지만 LPG 택시의 유가보조금(5년간 980만원)으로 인해 총소유비용의 격차가 증가한데 기인

■ LPG 택시에서 전기 택시로 전환이 지연되는 것은 총소유비용 뿐만 아니라 연료 충전의 편의성과 기회비용, 동절기 충전시간 연장, 전기차 안전문제 등이 영향을 미침²²⁾

- 법인 택시의 경우 2교대로 운영되는데, 급속 충전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대량의 택시를 한꺼번에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전기 택시의 경우 긴 주행거리로 인해 충전의 빈도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높으나, 급속 충전시설은 전체 충전시설의 약 10%에 불과
- 급속충전을 할 때 약 20분이 소요되나 겨울에는 배터리 저항²³⁾과 히팅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 30 ~ 40분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 발생

22) 한중학, 「인천광역시 전기택시 도입방안」, 인천연구원, 2019.

23)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 이온이 전해액을 통해 오가며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액체 상태인 전해액이 끈적끈적하게 굳어지면서 이온이 움직이기 힘든 환경이 됨. 배터리 내부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충전기에서 강력한 전류를 밀어 넣어도 배터리가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나오는 현상 발생. 겨울철 냉각된 배터리에 무리하게 고출력(초급속) 전류를 밀어 넣으면 배터리 내부에서 리튬 이온이 음극 표면에 결정 형태로 쌓이는 '리튬 석출(Lithium Plating) 현상'이 발생. 이는 배터리 수명을 극도로 단축시키고 심하면 화재(단락)를 유발할 수 있음

■ 향후 LPG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전기 택시와 LPG 택시 간의 총소유비용 격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기 택시 전환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

- 전기 택시 선택에 있어 초기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금융지원을 통해 차량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 전기 택시의 충전요금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
- 전기 택시 충전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속 충전시설의 확충이 시급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26년 6월호 통권 제82호

발행일 2026년 6월 2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7-001585-06

ISSN 3058-985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